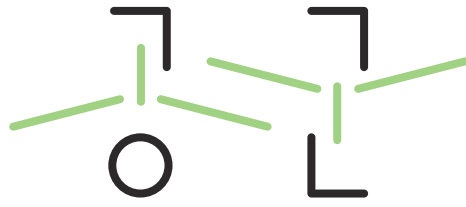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05
4 9 1

<http://afzine.co.kr>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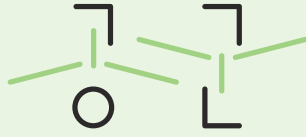
공군을 지키는 가장 포근한 힘, 가족

‘이번 호 표지는 아이가 그랬나?’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공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공군 자녀들과 함께 지면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어린 공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군, 그리고 가족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장병들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늘이와 함께 꾸민 5월호, 시작합니다.





<공군 자녀 대상 편지 공모>에서 당선된 언암초등학교 (왼쪽부터) 김한별·방준빈·윤서연·유다현 학생과 하늘이. 학생들의 편지와 인터뷰는 본문 6쪽~1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화풍지설	밤하늘의 별
06	기획특집	공군을 지키는 가장 포근한 힘, 가족
14	내 옆의 공군인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1대대 손정환 중령(진)
18	르포르타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대
24	그날, 우리 하늘	'공군'이란 열매의 본래 줄기, 한국항공건설협회
26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 최초의 비행단!
28	공군소담	멀티미터
30	외부기고	빨간 마후라의 추억
32	지금 이 순간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36	참모총장 취임사	제37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38	담벼락	가족에게 쓰는 편지
42	책 읽는 공군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위험한 과학책』

44	지피지보 공군인물	해공 신익희 선생의 항공사랑, 그 이유는?
46	우주의 이해	인공위성의 다양한 임무
48	생활 타이포그래피	시각보정과 커닝
50	공군인의 마음 건강	일곱 색깔 무지개, 사랑
52	첫 독자의 편집후기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54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나폴레옹, 진정한 군인정신에는 사심과 야망이 없다
56	생각하는 그림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58	기준의 기준	휴학생이자 아들, 친구이자 군인



표 지(앞) 어린이가 그린 공군(어린이날 특집)
그 림 여소희(연암초 5학년), 손아림(연암초 1학년)
리 터 칭 병장 홍인성(미디어콘텐츠과)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5월 1일(통권 제491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섭,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40189)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밤하늘에 별이 없다면 인류는 밋밋하고 무료한 우주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시골에 살지 않는다면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때문에 온전한 별자리 구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여름, 운이 좋게도 저는 국방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조금만 벗어나도 말 그대로 대초원이 펼쳐지며 까마득한 지평선이 이방인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숙소는 '게르'라고 불리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텐트를 이용했는데 한여름임에도 장작불을 피우지 않고서는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화장실은 또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게르 문을 나서서 몇 발짝 떼었을 때 무언가 복잡해 보이는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어나... 저는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쏟아지는 별들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어떤 대상에 몰입했던 특별한 순간이었지요.

사실 별이 인류에게 이런 감동만 주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별로 인해 태동한 점성술과 천문학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성술은 인간의 불안을 위로해 주면서 삶의 방향을 점지해 주었고 별자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서 기인한 초기 천문학은 땅과 바다에서 이동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항해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가 되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로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군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불일 있는 사람들과 별 불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무하는 부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지 않는 부대들은 별(장군) 불일이 거의 없습니다. 병사로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복무기간동안 별은커녕 영관장교도 마주치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별(장군)은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계급입니다. 물론 삼군본부에 함께 있는 이곳 계룡대는 별 불일이 아주 많습니다만, 장성 수를 축소해 나가는 국방개혁 플랜이 진행된다면 계룡대의 별들도 점차 줄어들겠지요.

지난 4월 우리 군은 육군과 공군의 참모총장이 임명되면서 많은 장성들이 새롭게 진급을 하거나 보직을 옮기는 등 별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군들의 계급장이 별 모양일까요? 저는 그 별모양의 계급에 부하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은 태양이 빛나는 낮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늘 어두운 밤하늘에서 그 빛을 발하며 자리를 지켜주지요. 여행자들은 해떨어진 광활한 초원이나 칠혹 같은 밤바다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었을 때 별자리들에 의지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장군들의 어깨에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이는 별을 달아준 이유가 이와 같다고 봅니다. 어느 날 문득 눈앞이 캄캄해 지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볼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 공군의 수장이 되신 원인철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별자리 이야기가 들어 있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한구절을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휘관들에게 소개하고 싶군요. 위정이덕 비여복신 거기소이 중성공지(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基所而 衆星共之) “진정한 리더십(德治)이란 북극성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멀고 가까운 못별들이 그 주위를 따라서 도는 것과 같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왼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방준빈 김한별 유다현 윤서연 학생과 하늘이

공군을 지키는 가장 포근한 힘, 가족

- 공군 자녀들의 편지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그렇다면 공군을 지키는 힘은 무엇인가? 내 옆의 동료, 실전적인 교육·훈련, 내 몸과 같은 항공기와 장비, 잠들지 않는 눈, 철통 같은 기지경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족'은 공군을 지키는 가장 포근한 힘이다. 어려운 임무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이름, 가족은 언제나 공군인을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존재다. 이번 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군 가족, 그중에서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4월 초, 월간 『공군』 편집실은 5월호 서산 ‘언암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어린 학생들의 힘을 빌려 공군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언암초등학교는 제20전투비행단 앞에 위치한 전교생 202명의 학교로서, 재학생 대부분이 공군 자녀다. 편집실은 언암초등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공군 자녀들을 대상으로 응원의 그림과 편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학업에 바쁜 와중에도 공군과 부모님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주었고, 110여 편에 달하는 그림과 편지가 모였다. 이 중 2점의 그림은 추가적인 편집을 통해 『공군』 5월호의 표지가 되었으며 4통의 편지는 지면을 통해 소개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 4통의 편지다. 엉뚱함으로 웃음을 주면서도 가슴 찡한 진심이 담긴 편지들을 만나보자.

From
To
보내는 사람_ 김현별 (언암초 6학년)
받는 사람_ 아빠 (20비 부품대대 상사 김창수)



아빠! 저 둘째 딸 한별이에요. 어렸을 때는 애교도 부리고 항상 아버지가 최고라고 표현도 많이 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해서, 마킹 좋은 기회가 생겨 공군 자녀 편지 쓰기를 통해 제 마음을 전해보고 싶어요.

아빠! 항상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아빠~ 저희가 웃고 떠드는 모습만 봐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봐주시는 아빠!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시고 가장으로서 다 포기하시고 저희에게 몰입하시는 아빠~ 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이 군인인 게 너무 부끄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정말 멋있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군인이라는 직업은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아빠 덕분에 저의 어깨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를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족 늘어진 어깨를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점,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은 알 수 있어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있으실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해내시고 계시는 우리 아빠! 아빠 덕분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제가 족복받은 거겠죠?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큰 별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밝게 비추어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하는 아빠! 다시 한 번 군인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죽 서 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From
To
보내는 사람_ 방준빈 (언암초 6학년)
받는 사람_ 아빠 (82창 생산관리과 원사 방현일)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언제나 활기차고 공부잘하는 막내
준빈이에요. 매일 야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서 힘드시죠.

그래도 맨날 늦게 오시면 인사로 반기는 준빈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엄마 집안일도 도와서 아빠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게요. 제가 3학년인가 4학년 때 아빠 일하는데 가보니까 좀던데, 앞으로 좀 두껍게 입으세요. 그리고
아빠 잘 때 방해 안 할게요. 매일 뭐 사달라고 징징대고 그러는 누나를 달고 사시니까 저라도 안 그럴게요. 누나와도
싸우는 걸 줄일게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평평 안 쓰고 모으고 저금할게요. 쓰는 것도 줄일게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 때까지 건강하시고, 엄마 아빠 화강시켜드릴게요. 아빠,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아빠 술
드시면 이상하게 변해서 무만 하면 웃으시니까 무서워요ㅋㅋ 어쨌든 맨날 야구으로 힘드시니까 저희의 버릇도 고치고 많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열은 어른이 돼서 용돈도 1억씩 한 달마다 드리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될게요.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는
아빠가 되세요. 준빈이가 응원할 테니까 힘내요. 광고에 나오는 박카스 사드시면서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활기찬 준빈이가 아빠에게 울림

From
To
보내는 사람_ 유다현 (언암초 6학년)
받는 사람_ 아빠 (82창 수송기팀 상사 유승완)



아빠, 안녕하세요. 저 다현이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일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엄청 작고 제가 들어가기도 작은 공간에 아빠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허리도 굽혀야 하고, 다리와 상체를

반대로 틀어야 하고 엄청 높은 곳에서 전등을 고치니 아빠가 항상 돌아오셔서 엄마께 어게 안마해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아빠보다 5배나 나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기 전까지 계속 학교가 너무 싫다고, 학교가 수면제라고 말한 게 후회가 되었어요. 아빠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

아빠께서 공군에서 체력평가로 연병장을 세 바퀴나 돌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험타가 왔어요.

저는 연병장을 몇십 미터만 뛰어도 허벅지대면서 뛰는 걸 포기하는데 아빠는 엄청 히어로처럼 와다다다다다다
달릴 것 같아요.(물론 제 상상이지만) 이제는 아빠께서 하시는 공부마저 '나중에' 하고 싶어졌어요.

* '현실자각 Time'의 줄임말.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회의감 혹은 무념무상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아빠, 아빠가 힘들게 버신 돈으로 한 달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신발, 먹을 거, 생활용품, 학용품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세 자매랑 울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려요! 저번에 작은 언니랑 저랑 싸웠을 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셔서 빵 터졌는데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제부터는 도도록이면 아빠 속 안 석이고 언니들과 싸우지 않을게요.(도도록이면!) 아빠, 사랑해요! 다현 올림

From
To
보내는 사람_ 윤서연 (언암초 6학년)
받는 사람_ 아빠 (20비 장비대대 원사 윤창호)



안녕하세요. 저 아빠딸 서연이에요.
아빠가 공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까 위험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일하시다가 다쳐서 걱정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빠 일하시더라도 몸 생각하면서 조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예쁜 옷, 피규어,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제가 심심하다고 할 때마다 놀아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한테 감사한 일이 정말정말 많네요. 저는 아빠한테 감사한 일도 많은데 저는 말썽만 피우고 말도 잘 안 듣고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울게요. 저는 아빠와 생일이 같아 좋았을 때도 있고 싫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아빠와 생일도 같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매일매일 방긋방긋 웃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의 오른쪽 팔이 될래요. 오른쪽 팔이 되면 아빠를 도와줄 수 있어서 오른쪽 팔이 될래요.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힘든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 아빠가 매일 지푸린 얼굴 표정을 하시면 저도 속상하고 슬퍼요ㅠㅜ 그리고 아빠 일이 많아도 일찍 와서 푹 쉬고 다음날에 일하세요. 아빠 일 많다고 해도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빠가 정말 좋아요 ♡♡♡♡♡ 저는 항상 아빠를 응원할게요. 일하시든 몸 생각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전 아빠가 다치시면 걱정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아빠 사랑해요 ♡♡♡♡♡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른쪽 팔이 될래요. 오른쪽 팔이 되면 아빠를 도와줄 수 있어서 오른쪽 팔이 될래요.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힘든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

공군 자녀들과의 일문일답

연암초등학교 도서관. 다양한 책들이 아끼자기한 인테리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편집실은 학생들이 보내준 귀엽고 사랑스러운 편지를 모두 읽은 후, 네 명의 공군 자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연암초등학교로 향했다. 이번 취재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군 마스코트 '하늘이와' 동행했다. 귀여운 편지의 주인공들! 방준빈, 윤서연, 김한별, 유다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암초등학교는 제20전투비행단 앞에 위치해 있다. 재학생 대부분이 공군 자녀라는 점이 특징이다.

AF : 장래희망이 무엇인가요?

준빈 : 운동선수인데요. 요즘 애들이랑 야구를 많이 해서 야구선수가 되려고 해요. (투수? 타자?) 타자요.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메이저리그의 강정호 선수요.

서연 : 조향사요. 향초나 향수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향기 나는 걸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별 :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다현 : 수의사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AF : 아빠가 공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준빈 : 82장에서 F-15K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연 : 폭발물 처리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한별 : 저희 아빠는 항공기 정비사이신데, 사무실을 옮겨서 행정업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다현 : 82장에서 항공기 고치고 계세요.





하늘이와 학생들의 첫 만남, 학생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함께 슬래집기도 하며 친해졌다.

AF : 아빠가 일하시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준빈 : 본 적은 없는데 가본 적은 있어요. (어땠나요?) 많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철로 된 것들이 많았는데, 뭔가 멋졌어요.

서연 : 옛날에? 한 초등학교 되기 전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른 일 하셨던 거 같아요.

한별 : 본 적은 없지만, 보게 되면 되게 멋있을 거 같아요.

다현 : 아빠가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은 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높아서요. 나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일하기 더 싫을 거 같아서 미안했어요.



아빠가 출근할 때 나는 발걸음 소리가 멋있다는 방준빈 학생(좌)과 아빠가 군복 입은 모습이 멋있다고 수줍게 말하는 윤서연 학생(우)

AF : 아빠가 멋있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준빈 : 네, 아빠가 아침에 군복이랑 군화 신고 나가실 때 신발에서 딱딱딱 소리 나는 게 멋있어요.

서연 : (수줍게 웃으며 고민하다가) 아빠가 군복 입는 게 멋있어요.

한별 :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게 자랑스럽고 군복을 입은 모습이 멋있어요.

다현 : 아빠가 자격증 판다고 열심히 공부하실 때 멋있었어요. (합격 하셨어요?) 네!

AF : 아빠랑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준빈 : 같이 야구 봐요. (응원하는 팀이 있나요?) 한국팀은 두산이요. 메이저리그는 피츠버그! 그런데 아빠가 바쁘셔서 많이 못 봐요.

서연 : 주말에 아빠 쉬실 때 시내 나가요. 장을 같이 보거나 제가 가고 싶다는 곳에 데려다주세요. (어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다이소?

한별 :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야기를 해요. (무슨 아이돌을 좋아하나요?) 여자친구요. 제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세요.

다현 : 아빠가 좋아하시는 TV를 같이 봐요.

AF : 아빠와의 기억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은?

준빈 : 가족여행으로 여수를 갔었어요. 그 후에 안 간 지 꽤 됐는데, 그때 케이블카를 같이 탔던 기억이 나요.

서연 : 저도 비슷한데, 가족여행으로 통영을 갔었는데 그때 아빠가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러셨어요.

한별 : 가족과 함께 놀러갔을 때 아빠랑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웠어요.

다현 : 윗집이랑 같이 부대개방행사에 갔었는데, 그때 아빠가 전투기 의자에도 앉혀주셨어요.

AF : 아빠에게 제일 고마운 게 무엇인가요?

준빈 : 아빠랑 같이 여행갔던 거요.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예요.) 좀 오래됐어요. 3학년? 4학년?

서연 : 아빠가 같이 놀아주시는 때요. 보드게임하고 놀아주시거나 재미있게 해주실 때요.

한별 :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빠한테 참 고마워요.

다현 : 외식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먼 종류요. 그리고 스테이크!

AF : '공군'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준빈 : 항공기로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서연 : 공군하면 전투기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한별 : 하늘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다현 : 아빠!



AF :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준빈 : 아빠가 바빠져서 여행을 안 간 지가 좀 돼서, 아빠가 일 줄이고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국이요! 야구 보러 가고 싶어요. (피츠버그?) 아뇨, 아빠가 LA다저스 좋아하셔서 LA다저스 경기 보러 가고 싶어요.

서연 : '아빠, 일을 좀 조심해'라고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림)

한별 :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현 :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다치신 적이 있나요?)

서연 :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손가락에 철 같은 게 박혀서... (울음)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다현 : 옛날에 날개뼈 쪽을 길게 다치셨어요. 속이 많이 상했어요.

AF : 관사에서 지내는 건 어떤가요?

준빈 : 학교 가는 부대 버스가 집에서 너무 멀어요. 그치만 다른 곳에 있는 게 부대 안에 다 있어서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안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서연 : 관사에 살면 나쁜 사람도 없고 안전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별 : 항공기 소리가 너무 클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거니까 괜찮아요. 또 나쁜 사람이 들어와도 다 보호를 해주니까 든든해요.

다현 : 밤에 돌아다니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책할 때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빠가 멋지고 고맙다는 김한별 학생(좌)과 '공군'이라고 하면 아빠부터 떠오른다는 유다현 학생(우)

AF : 아빠가 군인이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준빈 :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서연 : 군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군인에 대해 배운 게 있어요?) 아니요.
한별 : 군인이 쉬운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 위대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다현 : 아빠가 군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아는 게 많아서 알려주는 게 많아요.

AF : 아빠에게 궁금한 게 있나요?

준빈 : 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주면 너무한 거 같아서요. (얼마나 받으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한 달에 200? 300?
서연 : 폭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한별 :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서 특별히 없어요.
다현 : 왜 군인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AF : 아빠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준빈 : 야구 경기장에 그 투명한 뒤편이 있는데 (VIP석이에요?) 네, 거기서 LA다저스랑 피츠버그 경기를 보고 싶어요.
서연 :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봤어요?) 네, 지난번에는 엄마랑 이모랑만 갔는데 이번에는 아빠랑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한별 :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지금은 항상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갔는데 나중에 아빠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요.
다현 :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왜 못 키우게 하세요?) 마당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고양이는 원래 집에서 키우는 건데 마당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서러웠어요. (고양이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검색해서 말 잘 듣게 할 거예요.

AF : 공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준빈 : 앞으로도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서연 :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함)
한별 : 너무 멋지시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현 : 고맙고 힘내시라고 할래요. **AF**



내 옆의 공군인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1대대 손정환 중령(진)



글
7급 조은혜
(미디어콘텐츠과)



사진
중사 이태희(17비 정훈실)
상병 이현규(미디어콘텐츠과)

제4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1대대 손정환 중령(진)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6전대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손정환 중령(진)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는 전군 유일의 탐색구조비행전대로서 창설 이후 5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였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라는 신념 아래 극한상황에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조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현장에 출동해 산불 진화에 동참했다. 당시 최일선에서 HH-47 헬기를 조종한 이는 제231대대 비행대장 손정환 중령(진)이다. 공군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는 집에서도 세 아이의 아버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6전대 현역 조종사로는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휴직기간동안 겪은 에피소드를 엮어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¹⁾ 공군 조종사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손정환 중령(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재 하고 있는 일

- ▶ 강원도 고성 산불 진화를 위해 밤비바켓(Water Bucket)을 내리는 중
- ▼ 강원도 고성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 HH-47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1대대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전시나 평시에 조종사를 구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조종사 생존훈련, 조난자 탐색구조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나 백령도에 근무하는 공군 장병의 가족들을 공수하는 임무도 하고 있는데, 외딴 격오지에서 근무하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행복해하는 공군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강원도 고성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다급하였기에 한 번이라도 더 물을 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아빠, 육아휴직해도 괜찮아』, 손정환 저, 라온북, 2018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육아휴직



아이들과 야외활동 중인 손정환 중령(진)
오른쪽부터 첫째 손은울, 둘째 손지우, 셋째 손민우

결혼 초부터 세 아이의 아빠가 될 때까지 주말부부를 했어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세 아이를 위해 세 번의 육아휴직을 썼죠. 아내는 더 이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도 건강이나 경제활동의 문제로 육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도 임무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첫째는 초등학교 입학 앞뒤고 있었고, 둘째는 여섯 살, 셋째는 세 살이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당신이 육아휴직 쓰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죠. 6전대에서 남자 조종사는 한 명도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었던 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회에서 내가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집에 가면 나는 손님이야, 내 자리가 없어.’라고 하셨던 한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지낸 시간이 많다보니, 엄마를 중심으로 관계가 이뤄졌고, 때문에 휴가 때 집에 가도 손님 같아서 슬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곳은 가족들 곁인데, 그곳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했고요. 이미 8년 동안 주말부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제 존재가 희미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했죠.

육아휴직 3개월 만에 아내가 울면서 육아휴직 그만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남 얘기로만 들었던 육아 우울증을 제가 겪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육아 우울증이 오면서 체력적·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아내와 부딪히는 일도 자주 생기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 복직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를 하면 그 상태로 가만히 멈춰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을 할 때 직장 내에서 누가 진급했다거나 상을 탔다 등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솔직히 태연할 수만은 없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육아휴직 중 최대 위기, 육아 우울증



육아 우울증 극복하기

삶에서 에너지를 주는 일과 빼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때문에 아내가 그걸 알고 저에게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때부터 평소에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서관에서 미뤄왔던 책들을 봤고, 목공도 배웠죠.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얻으니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현실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우울증도 극복하게 됐죠.



저녁식사 준비 중인 손정환 중령(진)과 아이들



육아를 통해 깨달은 '관계의 기술'

육아는 관계의 기술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내가 말한 것을 잘 따라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니까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많이 생겼죠.

가장 큰 변화는 주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공군에서 중요한 특기가 조종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해보니 '내 아이를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 집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데, 분리수거하시는 경비아저씨는 얼마나 힘드실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분노에 찬 사람이었어요.(웃음) 후배 조종사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육아휴직 후에는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나의 업무지시가 부정확했거나 해당 업무에 익숙해질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육아휴직 전후로 부서 내 업무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관계는 달라졌죠. 예전엔 내 안에 에너지를 소진해가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서 벗어나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부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생각해뒀던 사항을 건의했더니 기대치 않게 복직 후 상을 받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복직 전과 후에 달라진 상황은 없어요. 여전히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녀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들을 쌓았어요. 작지만 소중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F**

육아휴직 후 변화된 삶의 태도

LIVE PAGE(내 옆의 공군인)는
공군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글
대위 박지완
(미디어콘텐츠과)



사진
상사 전용태
(공보과)



산악지형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들.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대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 산 속 깊은 곳이나, 바다 한 가운데나, 심지어는 그 곳이 적진이라도 괜찮다. 항공구조사(SART, Special Air Rescue Team)는 당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느 곳이든 간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무사귀환'이라는 말은 꿈이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제 6 탐 색 구 조 비 행 전 대 항공구조대대 항공구조사를 만나본다.



헬기를 타고 임무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항공구조사들. 비장함과 진지함이 감돈다.



임무지역에 침투하고 있는 항공구조사들. 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인인 한 팀을 이룬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임무 수행 중 조난당한 조종사와 주요 인물들의 구조·구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해·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주임무로 수행하는 전문요원이다. 이들의 작전범위는 한반도 전역이며, 필요 시 해외구호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로서, 적의 위협 상황을 극복하고 전투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조난자 보호 및 응급처치로 조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지역 또는 구조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전술 후송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난자는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무 난이도는 평범하지 않다.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요한 능력도 남다르다. 조난자 구조 임무는 지형과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만 한다. 조난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산악/암벽, 수상/수중, 고공/저공 등 가리는 곳 없이 뛰어 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구조사는 낙하산 강하, 스쿠버(SCUBA,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 자급식 수중호흡기) 자격 훈련 등을 기본적으로 이수해 흔히 '특수부대'를 떠올리면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모두 갖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구조사로서 응급의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각종 의료장비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의 항공구조사는 모두 2급 응급구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압도적인 신체능력과 전투능력, 응급처치능력까지 갖춘, 말 그대로 '능력자들'이다.

항공구조사들이 구조헬기에서 내려온 구조장비에 조난자를 탑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구조헬기와 접선지역에서 위치를 알리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는 항공구조사들.





항공구조사의 군복에 부착하는 부착물들. 이들의 팔뚝에는 항공구조사를 상징하는 'SART'가 자랑스럽게 붙어있다.

김대근 중사는 부사관이 되기 위한 기본군사훈련 도중 항공구조사의 존재를 알게 됐다. 함께 교육을 받던 소대 동기에 이야기를 듣고 부푼 마음으로 지원해 운명처럼 선발됐다. “항공구조사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땅과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항공구조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20개 이상이 있다. 습득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있지만 모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스스로를 볼 때 항공구조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영훈 상사는 20년 간 항공구조사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항공구조대대 내에서도 숙련된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병으로 복무하던 1996년, 우연히 보게된 항공구조사의 임무수행장면을 잊을 수 없어 고민 끝에 항공구조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랜 경험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임무 수행 중이나 훈련 중에 겪은 아찔한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육신거린다고 했다. 다년간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 위급한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다. “항공구조사로서 체력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끝없는 교육과 훈련, 전문적인 기술 습득으로 하루를 채우다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항공구조사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뿌듯하고, 이제는 항공구조대대의 교관급 요원으로서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을 키워가는 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고 상사의 말이다.

김대근 중사는 부상으로 군생활의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항공구조사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20년 간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지금도 항공구조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고영훈 상사.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 훈련에서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장비를 옮기고 있는 고영훈 상사.



암벽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구조사가 조난자를 등에 업고 레펠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해상에 발생한 조난자에 접근해 구조장비를 내리고 있는 모습.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경량화된 장비와 피복을 갖추기 마련이다. 하지만 항공구조사는 적진 침투에 더해 부상당한 조난자를 구조해서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 장비는 물론 (부상당한) 조난자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 안에서든 원활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항공구조사는 초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항공구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전시에 적진이나 야전지역에서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지만, 평시에는 항공기 추락, 어선 사고 또는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

해상구조훈련에서 해상에 발생한 조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항공구조사들.



항공구조사의 훈련은 언제나 실전적이다. 항공구조사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 해상구조훈련 등을 실시한다. 해가 진 깊은 산 속에서 야영을 하기도 하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망망대해에 뛰어 들기도 한다. 항공구조사들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강원도 모처에서 진행된 산악구조훈련에서 산 속을 뛰어다니는 항공구조사들은 날렵하게 움직이며 약속된 구조지점에서 정확히 헬기와 만나 임무를 수행하고 위험지역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작 하나하나의 숙련도는 탁월했고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라는 항공구조사의 신념은 결코 이들의 목숨이 조종사의 목숨보다 가벼워서가 아니다.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공군 조종사가 행여 외로이 조난당하더라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말이다. 이들은 구해낸 조종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는 생각으로, 조국 영공 수호에 목숨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있다. 항공구조사의 임무와 신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AF



눈 내린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여 이동하고 있는 항공구조사들.



항공구조사들의 다부진 체격과 타오르는 눈빛은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그날, 우리 하늘

'공군'이란 열매의 본래 즐기, 한국항공건설협회



글

교수 김기동 (공군사관학교 역사 교수)

그날, 우리 하늘

'공군'이란 열매의 본래 즐기,
한국항공건설협회



일러두기 : 본문에 나오는 인용은 모두 현대어로 순화해 표기했습니다.

▲ 1946년 공업박람회의 항공관에 설치된 「저 하늘로 영원히 날아간 선배들」이란 제목의 전시물, 명단에 기재된 인물은 서활보, 전상국, 김은제, 강세기, 최병문, 안창남, 이기연, 박경원으로, 일본군 소속 조선인 비행사로서 전사한 사례는 빠졌다.

광복의 여운이 맴돌던 1946년, 한국항공건설협회의 기관지인 『항공조선』에는 「젊은 항공인(航空人)의 말」이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은천랑(銀天狼)'이란 필명을 쓴 김양욱은 “항공건설 과정기에 있어서 민족반역자 친일파, 파괴주의자의 반성과 퇴진을 요구한다. 만약 반성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조선 항공인의 손으로 철저히 소탕, 또는 단호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전개할 것을 맹서한다.”고 역설했다. 그 역설에는 친일파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졌다.

이러한 비난은 식민지 시절부터 항공계에서 유명했던 신용욱을 겨냥한 것이었다. 해방 직후 남한 지역에는 일본군의 항공기와 관련 자재들이 남아 있었다. 한국항공건설협회의 전신인 조선항공협회는 그것을 항공 건설의 물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도는 항공기와 관련 자재들이 폐기 처분되어 고철로 매각됨에 따라 좌절되었다. 그리고 조선항공협회는 미군정의 조치에 따라 해산당했다. 조선항공협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욱의 능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고서 그를 맹비난했다.

조선항공협회는 신용욱의 해방 전 경력을 근거로 그를 친일파라고 단정했다. 협회의 논리는 친일파인 신용욱이 해방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국가 건설의 일환인 항공력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용욱은 태평양전쟁 중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서 일본군의 수송에 가담하고, 일본 해군과 합작해 항공기 생산공장을 세우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친일파를 배척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협회의 비난 논리는 적절해보였다.

친일파에 대한 비난은 비단 '은천랑'의 언설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필명을 '원자탄(原子彈)'으로 쓴 이상목은 “순(純)친일파도 경험이 많으면 선배라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흥미롭게도 한국항공건설협회는 1946년 공업박람회의 항공관에서 「저 하늘로 영원히 날아간 선배들」이란 제목의 전시물을 설치했는데, 그 명단에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출신으로 전사했던 지인태와 최병하, 그리고 소년비행병으로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했던 인재웅 등은 없었다. 그들의 전사 소식이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항공건설협회의 전신인 조선항공협회가 일제와 전혀 무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항공협회의 주축은 식민지 시절 일제의 항공정책 선전을 주목적으로 활동했던 조선국방항공단 출신들이었다. 신용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들 역시 전면에 나서기는 꺾꺾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협회의 강제 해산 조치 직후 흩어진 상태로 근근이 활동하고 있었다.

1946년 7월 최용덕과 이영무, 권기욱 등 중국 공군에서 활약하면서 독립운동에도 투신했던 비행사들의 환국은 이들에게 재결합의 기회로 여겨졌다. 이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비행사를 내세운 조직의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경력상 결함을 덮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최용덕 등의 환국 기념 행사를 성대히 치르면서 통합단체의 결성을 결의했다. 최용덕과 이영무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추대한 한국항공건설협회의 출범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양상은 국방부의 전신인 통위부의 인선과 유사하다. 당시 국내의 일본군 출신 중 가장 높은 서열에 있었던 이응준은 임시정부의 참모총장인 유동열을 통위부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네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간성이 될 군대의 상징이 되어 주셔야 만 군의 자세가 바로 설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 어르신네께서는 임시정부의 참모총장이시며 앞으로 이 나라에 세워질 군대의 정신이 되셔야 할 사명을 아울러 지니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이응준은 이미 일본군 출신의 상당수를 건군의 인적 기반으로 확보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는 군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인물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유동열을 통위부장으로 모셨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민간과 군, 양쪽의 항공 건설 노력을 천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항공성(航空省) 설치를 주장한 윤창현의 기고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력의 독립적 운용까지 구상했다. 그는 항공이 없으면 국방도 없고, 국가도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군 창설’을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로 명시했다.

미군정의 통제 속에서 한국항공건설협회의 활동 전개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용덕, 이영무를 위시한 이들은 춘천과 대전 등에 지부를 설치해 조직을 확장하고, 공업박람회와 특별 강연회 등을 통해 항공 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 건설의 노력을 경주했다.

현재 『공군사』는 한국항공건설협회를

공군 창설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민간 항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군 창설의 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언론은 한국항공건설협회 충남지부에서 항공장교 양성을 목표로 한 대전항공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대전항공학교의 교관은 최용덕과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신 등이었다. 우리가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기억하는 인물들이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2019년 3월 말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 김포의 육군항공사관학교에서는 국군의 항공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제1차 소집장교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 창설에 필요한 항공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1949년 3월 15일에 입소한 제1차 소집장교후보생들의 훈련 목적은 대전항공학교의 그것과 같았다. 육군항공사관학교로 대표되는 공군 창설의 과정은 한국항공건설협회에서부터 펼쳐졌던 노력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F



▲ 최용덕의 환국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 『동아일보』는 최용덕을 ‘항공총장’으로 상찬했다.



조국수호에 First! 임무수행에 Best!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 최초의 비행단!

최초, 빨간 마후라, T-50, 엄지 척...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공군 창군 70주년이자 제1전투비행단 창설 70주년을 맞은 2019년,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을 알렸던 제1전투비행단에 대해 알아보자!



▲ 제1전투비행단 광주기지 기공식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단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탄생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단인 '공군비행단(제1전투비행단의 시초)'이 탄생했다. 여의도에서 시작된 공군비행단은 이후 6·25전쟁에 8,300여회의 출격 기록을 세우며 승호리 철교폭파작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 6·25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동안 수원, 대구 등지로 옮겨 다니던 공군비행단은 1951년 8월 1일 사천기지에서 '제1전투비행단'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 F-5

서남부를 지키는 높은 힘

현재 광주에 자리 잡은 제1전투비행단은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광주 이전 후 제1전투비행단은 F-86, F-5 등 최신 기종을 도입, 운영하며 공군의 대표적인 전투부대가 되었다. 현재 제1전투비행단의 주력 기종은 F-5E/F 전투기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고등비행훈련기 T-50 골든이글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성공적으로 지켜온 제1전투비행단은 대통령 부대표창을 8회 수상하며 비행단 역사에 걸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빨간 마후라



▲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공군의 군가 ‘빨간 마후라’는 공군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부르게 된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는 학생조종사가 모든 비행교육 과정을 마치고 정식조종사로 인정받게 될 때 수여된다. 제1전투비행단은 비행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비행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조종사들이 비행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빨간 마후라를 목에 매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조종사들은 제1전투비행단에서 우수한 교관의 지도하에 이론을 배우고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을 통해 항공기 적응력을 키운다. 이후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활용한 실제비행훈련으로 고난이도의 비행기술을 배운다. 제1전투비행단은 마지막 고등비행교육과정 동안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T-50 골든이글



▲ T-50

국산 고등비행훈련기 T-50 골든이글은 F-5E/F 전투기와 함께 제1전투비행단의 대표 기종이다. T-50이 도입되기 전, 기존 비행훈련은 T-6, T-33, T-59, T-38 등 외국 훈련기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2005년 T-50의 제1전투비행단 도입을 계기로 국산 훈련기를 활용한 고등비행 교육이 가능해졌다. 2010년에 전력화가 완료된 T-50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조종사들을 양성했다. 뛰어난 교육성과를 통해 세계에 T-50의 우수성을 알린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계열 항공기들의 수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수출국 조종사들의 비행교육을 수탁하여 공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 T-50은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운영기종이기도 하다.)

엄지 척

제1전투비행단에는 비행단을 대표하는 독수리 마크(단마크)가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제1전투비행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마크가 있다. 바로 엄지를 척하고 내밀고 있는 금지마크다. 마크 중심에 있는 엄지는 공군 최초의 비행단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나타낸다. ‘FIRST & BEST’(금지구호)는 최초이자 최고의 비행단을 이루자는 목표를 나타낸다. 1968년에 탄생한 금지마크는 2008년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함께 탄생한 금지구호는 ‘조국수호에 First, 임무수행에 Best’라는 슬로건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단부대마크



별: 군과 제1전투비행단을 표현
 독수리: 조국 영공을 방위하는 용맹스러운 조종사와 항공기를 의미
 검색바탕: 하늘을 상징
 번개: 공군의 특징인 신속한 기동성을 표현

금지마크



상단문구: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비행단임을 강조
 전투기 문양: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비행단과 전투기를 상징
 하단문구: 최초이자 최고의 비행단을 이루자는 목표를 표현
 엄지: 공군 최초의 비행단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표현

장병과 지역주민! 함께하는 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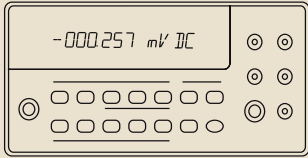
“상호존중하고! 배려합시다!” 하루일과에 앞서 제1전투비행단의 전 장병과 군무원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외친다. 부대원들 간의 배려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제1전투비행단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문화시설과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제1전투비행단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제1전투비행단은 겨울철 마을복지회관 사고예방 지원, 설맞이 지역주민 위문방문,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방역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 **AF**

부 대 연 혁	'49. 10. 1.	공군비행단 (여의도 기지) 창설 (공군 최초 비행단)	'01. 10. 1.	공군 최우수부대 대통령 표창 수상
	'50. 07. 3.	6·25 전쟁 시 한국공군 최초 전투 출격 (무스탕, F-51기종)	'05. 12. 29.	T-50 고등훈련기 최초 운영
	'51. 8. 1.	'공군비행단'에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09. 10. 1.	1건군 61주년 대통령 부대표창(총 8회)
	'66. 2. 25.	광주기지 이전 후 정착 (F-86, F-5)	'10. 5. 13.	T-50 고등훈련기 전력화 완료
			'18. 12. 24.	비행단 6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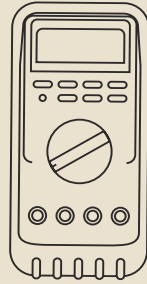


공군소담 空軍小談

멀티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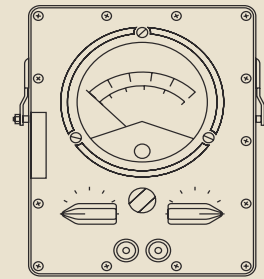
디지털 멀티미터
(벤치형)



디지털 멀티미터 (핸드형)



클램프미터



아날로그 패널 멀티미터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드라이버가 장비를 분해하는 도구라면, 멀티미터는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이다. 공고 혹은 공대 출신이라면 지겹게 봐 왔을 장비일 수도 있겠다. 한편, 멀티미터는 안전한 전자기기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다. 멀티미터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는지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점검하면 합선 혹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멀티미터를 친구나 동료보다도 신뢰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한편 공군에서도 멀티미터는 다양하게 쓰인다고 한다. 공군 부대 내의 시설 관리부터 항공기 정비에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멀티미터에 대해 알아보자.

멀티미터의 종류

멀티미터는 가격대별로, 기능별로 다양하다. 학생용 혹은 가정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멀티미터는 1~2만원이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기기의 정비 등에서 고 신뢰도, 고 내구성을 요구하는 기기는 몇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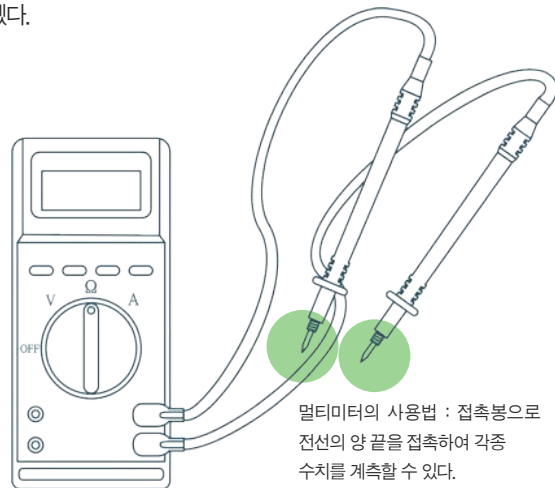


(사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핸드형 디지털 멀티미터

멀티미터는 예전에는 지침판이 있는 아날로그 형태의 기기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값이 나오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랙(Lack)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벤치형 멀티미터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휴대용 멀티미터 보다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멀티미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기로, 클램프미터라는 장비도 있다. 이는 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전선의 자기장을 통하여 전압, 전류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이다.

멀티미터와 공군

기본적인 전기 작업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다 보니, 공군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첫번째로 각 비행단의 각 시설에 전기가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시설대대에서 사용한다. 한편, 각종 항공장치 등 전자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각 대대의 장비과 혹은 정비창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실제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멀티미터가 임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다.



멀티미터의 사용법 : 접촉봉으로
전선의 양 끝을 접촉하여 각종
수치를 계측할 수 있다.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7급 김호열 제20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전력운영담당



저는 부대 전체의 전력을 관리하는 전력운영반 소속이며 수배전 설비, 발전기 예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작업을 할 때 차단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시 전기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 멀티미터를 이용해 전기가 흐르지 않는지 꼭 확인합니다.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멀티미터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또 전기라니게 평소에는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항공 유도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야간 비행을 할 수 없죠. 전기문제가 생기면 항공 전력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멀티미터가 없다면 전기작업이 불가능하니 멀티미터는 알고보면 공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멀티미터는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 지킴이다



상사 김민수 86창 통신화력정비팀 항법장비정비사



저는 통신화력정비팀에서 전술항법장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 후 수리된 해당 장비의 전류, 저항, 전압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자부품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멀티미터는 정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입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듯, 정비사는 멀티미터로 장비의 상태를 알아냅니다.

정비를 위해 밤낮으로 관련 자료를 찾고 멀티미터에 의존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점검하고, 결국 정비사의 사명감으로 그 부품을 수리해 내고 항공기 가동률을 회복시켰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멀티미터는 정비에서 정비사와 동고동락하는 존재이고, 정비란 장비와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사에게 청진기가 있듯, 정비사에겐 멀티미터가 있다



중사 권기원 86창 통신화력정비팀 항법장비정비사



저는 86창에서 적아식별장비의 긴급정비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멀티미터는 저희에게 눈이 되어주는 정말 소중한 장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이지만 전기가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정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니까요.

멀티미터가 없으면 장비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되고,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수백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정비를 멀티미터를 통해 완벽히 해내면 무척 뿌듯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정비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AF

#정비사에게 멀티미터란 '눈'이다



빨간 마후라의 추억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무를 마치고 작년 12월 장군 인사명령 발령 시 빨간 마후라의 본산지인 공군작전사령부에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75세 되시는 노모에게 “제가 공작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 드리니 “40여년 동안 공군에 근무하신 아버지가 공작사 근무를 못해봐서 아쉬워 했는데 아들이 육군 장군이 돼서 공작사 근무를 다하네.”라고 기뻐하셨다.

나 역시 공군 김포비행단 101대대에서 태어나서 고교시절까지 공군 비행단에서 자라온지 빨간 마후라를 두른 조종사만 보면 반가운 감정이 드는 “공군 가족”이라서 기대가 매우 컸다.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잠시 더듬어보면, 내가 자라던 공군 비행단의 문화는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다. 나의 아버님께서는 공사 11기로 입교하셔서 공사 11기 축구부 주장 생도와 전대장 생도를 하시고 F-86 조종사가 되셔서 주로 성남 비행장에 배치되었던 103 및 121대대와 공군본부에 근무를 많이 하셨다.

아버님께서 '63년 전투기 조종간을 처음 잡으실 때 비행단장, 대대장님들은 6.25 참전 용사들이셨으니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전투적이었는가는 별도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될 것이다.

조종사들은 항시 비상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비행대대 단위로 일주일 내내 생활이 이루어졌다. 퇴근하면 관사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서 모여 놀았으며 조종사들은 대대장 관사에서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일상사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부터 아주머니, 조종사 아저씨들까지 모르는 사람들 없이 지냈다.

당시에는 비행사고가 매우 잦았던 시기이다 보니 아침에 어머니께서 “오늘 아버지 비행 있으시다.”라는 말을 하시는 날이면, 그 누구도 집안에서 울음소리나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접시가 깨질 수 있다고 아버지의 비행 종료를 확인한 후에 설거지를 하시는 등 온 식구가 아버지의 안전비행에 촉각을 세우고 살았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 대를 이어 군인을 꿈꾸던 중학생 아들과 나는 대화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항시 전투조종사들의 사기와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가 대대장으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특히, F-86은 단좌비행기이므로 이륙 후에는 오로지 조종사 한 명이 모든 것을 상황조치 해야 하므로 비행 전후로 조종사들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 밖에는 대대장이 해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내가 장군으로 진급을 하자 아버님은 작고하셔서 안 계시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103대대장 시절 대원 몇 분들과 조출한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를 했다. 물론 아주머니들도 참석하셨다. 머리가 허영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옛날 103대대 시절을 회상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호칭도 물론 아저씨, 아주머니였다. 지금도 F-86 조종사들 모임에서는 분기에 한번 인류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몰았다는 자긍심에 충만한 86 조종사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옛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한다.

지난 2월, 공작사 합동조정관으로 전투기 체험비행을 할 기회가 생겨서 특별히 아버님께서 대대장을 하셨던 103대대가 있는 비행단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FA-50 전투기를 약 1시간 가량 타고 조종사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과거 아버님께서 비행대대장을 하시던 시절 내가 가졌던 추억에 비해 전투비행대대의 모습은 정말 현대화 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공군 문화는 전통적으로 “가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공군가족이라고 하는 끈끈한 정은 항시 남편 또는 아버지가 오늘 임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함께 겪는 가족들 간에 형성된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된다. 나의 부친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최고의 ACE는 기량이 뛰어난 조종사가 아니고 끝까지 비행을 하는 조종사”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공군의 전력의 핵심은 조종사 개개인임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육군 장군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AF

부친 故 정덕진 대령(上)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은 정해일 장군(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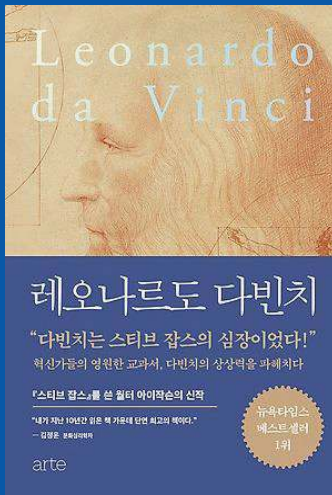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인문] 스티브 잡스 전기 쓴 아이작슨, 다빈치의 노트 7200쪽 분석

멋쟁이처럼 빠입고 다니던 50대 중반의 이름난 화가가 오래된 병원에서 밤마다 환자들과 대화하고 시신을 해부했다. 백 살에 이르도록 잔병치레조차 없던 노인의 시신도 포함해서였다. 그리고도 스무 구를 더 들여다봤다. 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너무 열심히 보려 하면 오히려 안 보이는, 보려고 다가가면 흐려지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다듬던 무렵도 그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체의 피부를 벗겨내고 그 안의 근육과 신경을 살폈다.

세계적인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 그려낸 레오나르도다. 벤저민 프랭클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의 전기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전기가 한 개인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형식”이라며 한동안 멀리할 듯했었다. 그러나 잡스 이래 6년 만에 다시 전기를 썼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영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는 “다양한 분야-예술·과학·인문학·기술-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혁신·창의성·천재성의 열쇠다. 그 궁극을 보여주는 인물이 레오나르도”란 취지로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아르테/19.03/720p/55,000

일반장병 추천도서



[인문] 오른손잡이 50여년... 이제 왼쪽을 써야 할 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황선미의 산문집. 한국 창작동화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29개국에 번역돼 세계 곳곳에서 초청받는 작가가 됐지만, 자신은 “두 아들의 엄마. 서울에 사는 중년. 콤플렉스 덩어리. 외로운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한다.

50대에 자신을 이루는 것들을 돌아보게 된 작가는 오래된 통증을 통해 자신의 몸을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 뼈가 부러지면서 구부러진 채 뭉툭해진 새끼손가락부터 고질적인 구내염, 흔들리는 어금니, 목 디스크로 시작해 어깨·팔·손끝까지 통증이 번지며 완전히 망가져 버린 오른쪽. 그는 그동안 불균형적으로 오른쪽을 혹사해왔음을 깨닫는다. “오른손잡이로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부터는 왼쪽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지 봐야겠다. 서툴고 느리고 두렵고 어색할 테지만 왼쪽 길에도 역시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겠나.”

“나는 내 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내 그물에 걸린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을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 참 고맙다.”(‘작가의 말’)

익숙한 길의 왼쪽 /황선미/미디어창비/19.03/204p/13,000

18비, 강원영동지역 산불진화작전

제18전투비행단은 지난 4월 5일(금)부터 이틀 간 소방차 4대와 소방인력 20명이 출동하여 소방서 및 지역부대들과 함께 산불진화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화작전 투입을 위해 전개한 공군 및 소방청 항공전력 40대에 유류를 84회 지원하는 등 산불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37대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대장 취임

제36·3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4월 16일(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제37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원인철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 장병 및 군무원에게 “대한민국의 영공과 국익을 수호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예 공군력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4월 15일(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 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강하고 믿음직한 최강의 정예공군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전비,
야간비행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4월 3일(수) 24시간 실전적인 영공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훈비,
항공기 린스(Rinse) 시설 운영**

제3훈련비행단은 4월 4일(목) 항공기 부식 방지를 위해 린스(Rinse)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11전비,
화재 예방 활동**

제11전투비행단은 4월 5일(금) 대형 산불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부대내외의 대형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5비,
전투태세훈련(ORE)**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4월 1일(월)~4일(목)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태세훈련(ORE)을 실시했습니다.



**17전비,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9 예선대회**

제17전투비행단은 4월 6일(토)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9 대전/세종/충북남부 예선대회를 실시했습니다.



**20전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봉사활동**

제20전투비행단은 4월 10일(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림복지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37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존경하옵는 국방부 장관님!

역대 공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이왕근 총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우리의 영원한 전우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예 의하여 제37대 공군 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장관님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대한민국의 영공과 국익을 수호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상황은 남·북이 오랜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위할 수 있는 강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수행 능력과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전투력을 배양하고 사이버, 테러, 재해재난 등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에서 시작된 우리 군의 혁신 계획입니다.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수행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구조와 인력 구조, 전력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을 차질 없이 충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강하고 스마트한 공군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해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전 연락기 20대로 창설된 공군은 지금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전력을 운영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제 창군 100주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핵심과학 기술을 접목한 항공우주력 발전을 통해 미래와 우주를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실천하면서 군 기강이 확립된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언제나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과 공감 속에서 임무와 휴식을 조화롭게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믿음직한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듯 공군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본인이 오늘 강조한 사항들은 총장을 비롯한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총장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 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룡대에서 식전을 주관해 주신 장관님과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0여 년 동안 오직 국가안보와 공군발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명예롭게 군문을 떠나시는

이왕근 총장님과 박혜경 여사님의 앞날에 큰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원천인, 공군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 인 철

담벼락

그 일흔일곱 번째 이야기

「가족에게 쓰는 편지」

내 인생의 블록버스터 '서울행'과 '계룡행'

From.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중령 이기준



To. 아들

해리포터를 유난히 좋아하더니, 해리포터를 닮아가는 우리 집 15살, 나의 아들 다니엘.

SNS에 자기소개를 할 때 '호그와트 마법학교 그리핀도르 학생'이라 쓰고 해리포터 시리즈 양말과 옷을 즐겨 입는 불 빨간 사춘기 아들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기 위해 킹스크로스 역에서 기차를 타는 것처럼, 아빠는 나의 15살을 만나기 위해 계룡역에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영화배우 공유에게는 인생작이 천만관객 영화 '부산행'이겠지만 아빠에게는 가족을 만나러가는 '서울행'이 인생의 블록버스터란다. 아빠는 계룡역 승강장으로 향할 때마다 해리포터의 기분을 떠올린다. 해리포터가 킹스크로스역 9와 3/4 승강장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설렘이었어. 기동벽 승강장을 통과하면 호그와트 마법학교행 열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깐 말이야. 열차를 타면 해리포터가 가장 좋아하는 곳 호그와트에 도착하잖아. 아빠 기분도 해리포터와 똑같아.

열차에 오르면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스러운 나의 15살, 10살, 그리고 아빠의 평생 애인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깐. 아빠는 열차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서울행' 열차가 출발하고 1시간 20분 후 용산역에 도착하면 용산역 광장 앞에는 엄마가 아빠를 데리러 오지. 그때부터 아빠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 집에 도착하면 나한테 달려와서 꼭 안기는 나의 10살 막내 스텔라가 있고, 변성기로 중저음의 보이스컬러가 멋진 나의 15살 다니엘이 인사를 해준다. 이런 너희들을 내 품에 꼭 안고 있으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다.

이게 바로 삶의 마법 같은 일이야. 아빠에게 '행복'을 선물해주시니까 말이야. 이들의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아빠는 다시 '계룡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아빠에게 '계룡행'도 '서울행' 못지 않은 블록버스터 인생작이야. 아빠 부서가 병영정책과인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병영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하거든. 아빠는 '계룡행' 열차에 오를 때마다 아빠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꿈꾼단다. 이번 생은 아빠도 처음이고, 아빠가 된 것도 처음 이라 아빠가 많이 서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DNA를 가진 나의 15살, 나의 아들 다니엘! 인생의 성장통인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민도 많을 텐데, 잘 버텨주어 너무 고맙다. 남자는 직진이야! 아빠와 함께 목표를 향해 같이 직진해보자.

누구나 글 말미에 하는 말, 그러나 꼭 해야 하는 말.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 정말로!」



2019년 6월호부터 '담벼락'이 '공군인의 편지'로 변경됩니다. 편지가 게재된 월간 「공군」을 원하시는 곳에 기념품과 함께 발송해드립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공군 지담당 대위 이요셉, 인트라넷 : wittyyo@af.mil /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아픈 손가락, 자랑스러운 엄지

From. 교육사령부 기지지원전대
일병 김무진



To. 어머니

찬바람이 슬슬 옷깃을 여미게 하던 지난 9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밝은 얼굴로 입대하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캉’ 하는 괴성과 함께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던 전천후는 6주 후 저를 어머니에게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어머니께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하얀 태극기를 붙여주셨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뜨겁던 가슴을 안고 자대에 갔지만 제 마음처럼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일취월장하여 멋있게 행사를 치르고 싶었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고된 훈련과 낯선 환경은 어느새 제 가슴 속 불꽃을 꺼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장대원의 생명인 손가락까지 다쳐서 더 이상 훈련을 못하는 상황은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라리 의장대에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 매일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들에게 값지고 값진 훈련 시간이 저에게는 그러지 못해 가슴이 아팠습니

다. 인정받을 수 없었던 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못한 모습으로 보일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던 중, 빨래를 하다 주머니 속에서 지난 10월 어머니가 달아주셨던 하얀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찢굴찢굴해진 태극기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달아주신 멋진 태극기였습니다. 빨래통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찢굴찢굴해진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찢굴찢굴해진 태극기를 보며 여전히 아끼는 저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병이라는 저의 자리도 생각하고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장대장님의 권유로, 부대개방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더욱 더 노력해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늘의 따뜻한 기억

From. 공본직할 기상단 군수와
중위 최지훈



To. 아내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매일 반말만 쓰다 존댓말로 쓰러니 조금 어색하지만 이 편지가 존경과 사랑이 담긴 편지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존댓말로 써봅니다. 이 글은 당신과 나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나요? 내게 있는 당신과의 기억을 하나씩 적어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워 약속한 결혼, 결혼식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 지갑을 도둑맞아 혼쫓이 났던 신혼여행, 우리가 자주 가는 초밥식당에서 서로 연어를 먹여주던 기억, 빗꽃 핀 거리를 걸으며 꼭 잡곤 했던 두 손. 크고 작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단 몇 분 만에 아스라이 스쳐 지나갑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일상들... 내게는 모두 다 보물 같은 기억입니다.

얼마 전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극찬했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기억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지요. 미루고 미루다 첫 화를 봤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마지막 화까지 다 보고 말았어요. 당신 표현대로 ‘명작 중의 명작’이라 칭할 만한 드라마더군요.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는 병,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가 깨달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 미망인이 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남편이 죽기 전 함께 보낸 순간순간의 기억 전부가 삶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김혜자 할머니의 내레이션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듯합니다. 나의 나이는 고작 스물여덟밖에 되지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할머니의 눈을 빌려 인생을 성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인생의 교훈을 배운 셈이니 몇 십년을 아낀 것 아닐까요? 당신도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훗날 나이가 들어 나의 기억과 당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기억이 점점 늘어날 때, 그중 ‘조금 덜’ 희미하고 ‘조금 더’ 선명한 기억 덕분에 ‘살아서 좋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의 기억 때문이면 더 기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불잡혀 우리의 ‘오늘’에 대한 기억을 빼기지 말아요. 당신에게 내가, 내게 당신이 준 기억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당신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영에게, 남편 지훈.

언제나 항상 옆에 있을게요

From. 제16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상병 송명규



To. 부모님

2017년 11월 13일,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훈련소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아빠의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고, 점심까지도 괜찮은 표정을 보이던 엄마도 막상 아들이 가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어질 때 울지는 않았지만 연병장 한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더 흘릴 것 같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대를 하고 추운 가을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2018년 초는 너무나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인터넷 편지와 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고모부의 몸 상태를 말했고 특기 학교에 있을 때 그만 우리를 떠났습니다. 엄마가 고모부를 도와줬을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옆에 제가 없어서 더 외롭고 추웠겠지요. 그리고 자대에 오고 나온 첫 휴가 때 갑작스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악의 폭설이 찾아와 더더욱 추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옆에 휴가 나온 제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다 보면 행복한 순간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과 같이 운이 좋게 매번 휴가 때마다 가족의 기념일이었고 힘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휴가를 통해서 아들을 만나 위로가 되어서 집에 갈 때마다 매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병 말에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 집에 가는 걸 고민했지만 오고 싶으면 오라던 엄마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슬픈 일도 생기는 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다시 또 큰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도 재해휴가를 통해 부모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도와준 덕에 그래도 웃으시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너무 더운 무더위에 가을이 지나간 것도 모르는 것처럼 겨울이 찾아왔고 저희 발에도 다행히 수확이 좋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치대로라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이제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면 전역을 하고, 이후에는 일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하기에 지금보다는 더 바빠질 몰라도 언제 어디에 있던 힘든 일, 슬픈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예젠 끝이 아니라

From. 제10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보급대대
병장 양현우



To. 할머니

벌써, 혹은 이제야 5월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긴 시간을 제가 보냈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기다리신 2년보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겨울과 여름이 두 번씩이나 지나 이윽고 입버릇처럼 말하시던 벚꽃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탈도 많고 옷을 일도 많던 군 생활은 분명 길었음에도 저는 아직까지도 처음 훈련소로 함께 가던 날이 선합니다.

할머니는 이 2년이 어떠셨나요. 할머니에게 2년은 짧은 시간이었나요, 긴 시간이었나요. 2년 동안 식당일이 너무 고되어 힘든 하루들은 며칠이나 있었는지. 굶은살 위에 몇 번의 굶은살이 더 박혔는지. 제 전화를 기다리다 잠드신 날은 얼마나 되는지. 입대하기 전부터 저 대신 밤잠 설치며 하시던 걱정들은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전역 후에 6월 한 달간은 최대한 할머니와 놀러 다니고만 싶어요. 그 이후로는 곧 서울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앞으로 집에는 지금보다도 못가겠지요. 모두 모여 저녁을 먹는 날도 1년에 손에 꼽겠지요. 저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처음으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갔을 때는 모두가 놀라 형과 누나의 눈이 둥그레지는 것이, 할머니 표정이 처음엔 뽀로통하다가도 금세 환해져 웃음 주름이 잔뜩 생기는 것이 재미있고 참 좋아서 종종 모든 것들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을 모두 예쁘게 묶어 그 안에서 맴돌고만 싶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곧바로 집을 떠나 취업을 하려 해요. 할머니의 삶이 더는 가족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뜨거운 돌솥을 만지지 않아도 되도록. 제 전역이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인 것처럼 할머니의 삶도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아쉬운 마음 없이 오히려 설렙니다. 다만 편지를 쓰는 지금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올해 벚꽃이 이르게 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휴가에 맞춰 같이 벚꽃 구경을 가고 싶었는데, 정말로 이제 당신의 눈에 더는 그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못 다한 이야기

From. 방공관제사령부 제8145부대 기지중대
병장 김장한



To.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오랜만에 적는 편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멋진 풍경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끽하면서 말이지요. 매일 보던 산 위 부대의 풍경이 무채색에서 극채색으로 변하는 요즘, 순찰을 돌고 있노라면 이 멋진 풍경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봄을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더하면서 말이지요. 어쩌면 우편함에서 제 편지를 발견하고 놀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만 되었다 하면 매일 통화하는 아들니까요. 또 어쩌면 편지를 보며 걱정부터 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대에 있는 아들을 지나 깨나 걱정하시는 부모님이시니까요. 돌이켜보면 진주에서는 일상이었던 부모님과의 편지가 이제는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시간이 꽤나 지났음을 실감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는 보다 편리한 전화가 있었기에 편지라는 소통 수단을 잊었으니까요. 갑작스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건 어제도, 그제도 통화를 했지만 말로는 미처 못 다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글로써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 생활 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간 부끄러움에 제대로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하자니 어색하지만 제 마음이 부모님께 진솔하게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모님. 혹시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절실히 안다'는 격언을 알고 계신지요. 저는 이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입대 전에는 이 말을 단순한 격언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진실임을 저는 진주 훈련단의 문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사실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달으면서 말이지요. 비유하건데 마치 부모님의 존재는 제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감히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제게는 군 생활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던 수많은 일화들이 어제의 일처럼 기억납니다. 수료식 날 멀리서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시던 모습,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들의 면회를 위해 수백 리 길을 오시던 모습, 아쉬운 표정으로 복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모습 등 수백 가지의 일화들이 말입니다. 아직 군복무중인 철없는 아들이 부모님께 받은 이 많은 사랑을 돌려드리기란 요원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자리를 통해 부모님께 다짐은 드릴 수 있겠지요. 앞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을 말입니다. 이 다짐만이라도 잘 지켜나간다면 부모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되갚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슬픔으로 보답하는 나쁜 아들은 되지 않을 테니까요.

휴가 때마다 부모님께선 제게 아들에게 항상 군 입대 후 늠름해졌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군대에 가더니 씩씩해졌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저의 이런 성장에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곧 있을 휴가 때에도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함께 맞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치

From. 제2방공유도탄여단 제8983부대 기지중대
일병 김두한



To. 아버지

'넌 늠름해졌냐? 난 젊어봤다!'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지. 5월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네요. 재배하는 나무는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 곧 휴가를 나갑니다. 한창 공부하던 시절 꼭 그러셨죠.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항상 그 말씀에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덧 2019년이 되었네요. 지금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20대 중반인 제가 설정한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때, 전 군대에 있습니다. 공군에 입대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드디어 가는구나!'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던 아버지. 그 이면의 걱정을 입대 후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아직, 난 어리구나.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고민을 함으로써, 깊은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차에서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죠.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전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께서 제게 차에 타라고 하신 뒤 술을 권하셨고, 그때 나는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넌 늠름해졌냐? 난 젊어봤다!' 저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대하던 그 순간까지. 저도 이제 인생의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갈등을 빚을 때 언성을 크게 하여 화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정말 스트레스였지만, 그 이면의 감정을 이제는 '알겠어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알지 못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전 그 의도를 고민해보며 곱씹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를 건 만큼의 성과를 아직까지는 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흔들려 떠밀리듯 입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그리고 '공군'이라는 선택만큼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한 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저는 이곳 춘천에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전역 후 좀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이 편지를 통해서 약속드릴게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글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공방어대
병장 맹주옥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꽃도 그렇다

우리 삶에서 시를 맞이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초
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을 숨 가쁘게 지나온 평범한 20
대들에게 시는 어쩌면 그저 풀어야 할 문제일 수 있습
니다. 저자가 시를 쓴 배경을 공부하고, 저자의 의도를
찾고, 시에 들어있는 비유나 은유를 탐색하기에 비뻔
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시의 아름다움과 시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교탁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습
니다. 당황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선생님은 '교탁 위에 서면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
듯 『꽃을 보듯 너를 본다』의 저자 나태주 시인은 우리
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보고, 자세히 보
고, 오래 보며 익숙한 것들의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찾
아줍니다.

시인은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
히려 발밑을 봅니다. 발밑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
고 그냥 지나치는 풀꽃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풀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것입니다. 언젠가 피었다 어
느새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무가치함과 무의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풀꽃
은 더 이상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됩
니다. 단순히 가치와 의미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활짝 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
고 그 풀꽃은 무엇보다도 밝고 아름답게 새로운 생명
으로 창조됩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블로
그나 트위터에 자주 오르내리는 시들을 모아 발간한
시집입니다. 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책
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며 좋은 곡들만 모아 놓
은 베스트앨범 같은 시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시가
주는 유익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는 현
대의 빠른 속도감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쉼이 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삶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무
의미해 보이고 소외된 누군가를 보며 그 속에 있는 아
름다움을 발견해 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
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지음
도서출판 지혜 펴냄

위험한 과학책

-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과학적 질문들

우리는 영화 <스타워즈>나 <어벤저스>를 보며 “저게 실제로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지구를 들어 올리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염력을 쓰는 것 같은 일들을 보며 말이지요. 대부분은 이런 공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랜들 먼로의 『위험한 과학책』은 수학이라는 정량적인 방법과 그림을 통해 흥미롭게 확인시켜줍니다.

『위험한 과학책』은 NASA에서 로봇공학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이언스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 랜디 로즈가 저자의 웹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들에 답한 것들을 추려 모은 책입니다. 독자들의 질문은 다소 멍청하고 엉뚱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자료, 그리고 여러 논문을 통해 답합니다.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멈춰도 지구 대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인구와 물건 대부분은 1,600km/h의 강풍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전혀 다치지 않는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처럼 흥미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간단한 과학적 지식과 함께 차근차근 말해줍니다.

이외에도 책에는 과학적으로 신비한 사실들이 여럿 적혀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남서쪽 카타툼보라는 지역에서는 1년 중 절반 이상 번개가 밤마다 수백 번 내린다 합니다. 1시간에 2만 번 이상 번개가 쳐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개를 전기로 이용할 수 있

으면 어떨까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를 논리적으로 계산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법한 엉뚱한 질문이었는데, 이를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계산하여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에 수학적으로 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도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질문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엉뚱한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학이 발달해왔습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이처럼 엉뚱하지만 논리적인 ‘과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F

글

공본직할 기상단 제400기상파견대

일병 안승일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지음

도서출판 시공사 펴냄



해공 신익희 선생의 항공사랑, 그 이유는?

해공 신익희 선생,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도 이름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과 외무부장, 법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제헌국회 의장을 역임했다. 사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참고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훈장이다. 그 품격에 걸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59명이 수여 받았다.

백범 김구 선생과 우리 공군의 인연은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 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김신 장군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해공 신익희 선생과의 인연은 생소할 것이다. 필자가 공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편찬 장교로 근무할 당시 해공 신익희 선생이 우리 공군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넘어서 애뜻하게 생각했다는 일화를 들곤 했었다. 필자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애뜻하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는 했다. 애정과 애뜻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이니까. 왜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라는 감정을 느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김은제 비행사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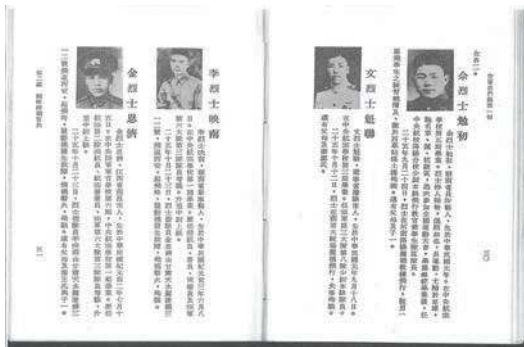
해공 신익희

김은제 비행사

‘중화민국 공군총렬록¹⁾’에 기록된 김은제 비행사의 행적부터 살펴보자.

김열사 은제, 강서성남창市인, 중화민국기원전 2년 7월 15일 출생, 중앙육군군관학교 제6기(황포군관학교), 중앙항공학교 제1기 필업(졸업), 항공 제2대 비행원, 항공서(航空署) 서원, 공군 제6대 제3대대원 등 역임, 중위상급(中尉上級), 25년 10월 23일 편대원 이영남과 임무수행 중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순직. 유족으로는 부모와 처 쯤씨, 아들이 있다.

1)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 각지의 군벌을 정리하던 북벌시기~중일전쟁 기간까지 공군 소속으로 순직 또는 전사한 인물들의 공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역사서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의 김은제 비행사에 대한 기록

대만 국사관에서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김은제 비행사의 기록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벅차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했다. 그동안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에 기록된 한국인은 전상국 비행사와 구양명(김원영) 비행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제 비행사는 중앙육군군관학교 기병과를 제6기로 졸업했다. 중앙육군군관학교는 황포섬에 있었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중앙항공학교 정찰원 훈련반 제1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중화민국 공군에 투신해 일본군과 싸웠다. 김은제 비행사는 처음부터 군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문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비행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나와 보니 무력을 가져야 민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조선 사람은 군사기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라고 말했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학 대신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비행술을 선택한 그의 뜻이 크게 느껴진다.

김은제 비행사는 최용덕 장군, 장성철, 김진일 등 한국인 출신 중국공군 장교들과 중앙항공학교에서 함께 근무를 한 인연도 있다. 그러나 그는 삼십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왕씨와 아들이 남겨졌다. 해공 신익희 선생이 우리 공군을 애뜻하게 생각한 이유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첫째 사위가 바로 김은제 비행사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김은제 비행사

공금증이 살짝 풀렸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공금증도 생길 것이다. 왜 부인이 왕 씨인가? 혹시나 오해가 있어 밝힌다. 사실 김은제 비행사의 부인 왕 씨는 곧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장녀 신정완 여사다. 신익희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왕 씨라는 성을 사용했기에 신정완 여사도 왕령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사용한 것. 아쉽게도 김은제 비행사는 한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순직한 76년이 지난 다음에야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잊혀진 항공 독립열사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할수록 가슴만 먹먹해질 뿐이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해방 후 조선항공기술연맹 명예회장을 맡았다. 항공단체의 명예회장직을 수락한 것은 비단 자신의 사위인 김은제 비행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신익희 선생뿐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인물들은 조국 해방을 위해서 또한 해방된 조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공군의 필요성을 간파한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역사의 뿌리를 찾다보면 백범 김구, 해공 신익희,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명망 있는 독립지사들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대한민국 공군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다. AF

김은제 비행사 약력

- 1906년 7월 15일~1936년 10월 23일(만 30세)
- 1929년 5월 황포군관학교(중앙육군군관학교) 기병과 6기 졸업
- 1931년 3월 중앙항공학교 제1기 정찰원 훈련반 졸업 / 중앙항공대 근무
- 1933년 한국혁명당 당원 및 의열단 활동
- 1934년 8월 최용덕, 장성철, 김진일 등과 중앙항공학교 근무
- 1935년 9월 중국 공군중위 진급 및 공군 제6대 제3대대 중위성원
- 1936년 10월 비행 중 순국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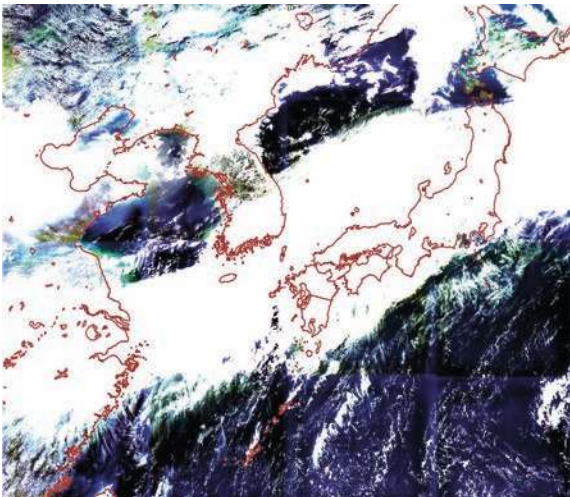
인공위성 - 2편

인공위성의 다양한 임무

인공위성은 지구 밖에서 우리 일상 속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GPS로 위치를 알아보고, 해외 축구경기를 보고, 기상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인공위성 덕분이다. 이번호에는 인공위성의 임무에 대해 알아보자.

인공위성의 임무와 탑재체

인공위성은 크게 우주공간에서의 임무지원을 위한 본체(Bus)와 본래의 임무수행을 위한 탑재체(Payload)로 나뉜다. 본체는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전지판, 지상국과의 교신을 위한 안테나, 인공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탑재체는 위성의 임무에 따라 달라진다. 통신, 관측, 기상, 항법, 과학연구 등 탑재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구관측위성은 광학, 적외선 등 카메라 탑재체를 이용하여 지구 환경, 해양 및 지표상황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GPS로 대표되는 항법위성은 여러 기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하며 지상에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 군사/정찰위성은 군사적 목적의 위성으로서 광학/적외선 망원경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주로 영상정보 획득이 임무다.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해상사진,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위성이 촬영한 지상사진,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모험, 행성탐사 위성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한 달 착륙 성공 이후 우주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은 태양계 행성탐사로 이어졌다. 1973년 마리너 10호는 수성과 금성을 성공적으로 탐사했으며, 1976년 바이킹 1호는 처음으로 착륙선을 화성의 표면에 안착시켰고, 1972년 파이오니어 10호는 목성 탐사 후 명왕성을 가로질러 태양계를 벗어난 첫 번째 우주선이 되었다. 행성탐사위성은 지구에서 출발하여 임무 목표지점까지 도달한 뒤 행성궤도에 진입하여 관측하거나, 착륙선을 내려보내기도 한다. 행성탐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달, 화성, 소행성 탐사에 도전하고 있다.



목성탐사선 파이오니어 10호, 출처 : NASA



머나먼 외계세계를 바라보는 망원경, 우주망원경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중에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공간을 바라보는 위성이 있다. 이를 우주망원경이라 하는데, 우주망원경은 지상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공간의 관측을 위해 우주에 설치된 망원경이다. 우주망원경은 지상 관측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하기 매우 힘들지만, 지상 관측보다 훨씬 선명하고 먼 피사체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우주망원경인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미국에서 쏘아 올린 직경 3m짜리 초대형 반사망원경이다. 우리가 자주 봐 온 신비로운 우주사진은 대부분 허블망원경이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출처 : NASA

우주인의 보급자리, 우주정거장

1961년 인류의 첫 우주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진출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상에서 발사되어 짧은 임무시간을 보내고 다시 귀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개발의 도약을 위해 구상된 것이 '우주정거장'이다. 우주정거장 또한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인위적인 물체이기에 '인공위성'에 포함할 수 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궤도에 건설되어 사람이 장기간 우주공간에 생활하면서 우주실험, 우주관측 등 우주개발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지구에서 사람이나 기지재를 우주선으로 수송한 후 이곳에서 조립하여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건립되었다. 최초의 우주정거장인 러시아의 살류트를 시작으로 스카이랩, 미르 등을 거쳐 현재는 미국의 주도하에 16개국의 협력으로 건설한 국제 우주정거장(ISS)이 임무 중에 있다. 국제 우주정거장은 고도 350km의 궤도에서 하루에 지구를 약 16바퀴 공전하며 현재에는 6명이 체류 중이다. AF



국제 우주정거장, 출처 : NASA



현재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출처 : NASA



공군 창군 70주년! 이제 우주를 지배한다. 「우주의 이해(핵심주제 70선)」 책자 발간 안내

공군 장병 여러분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신 우주지식을 전하기 위해 「우주의 이해(핵심주제 70선)」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부대에 배포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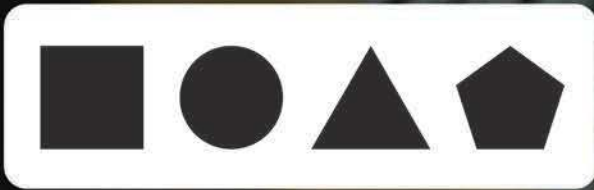
* 본 책자는 군내에만 배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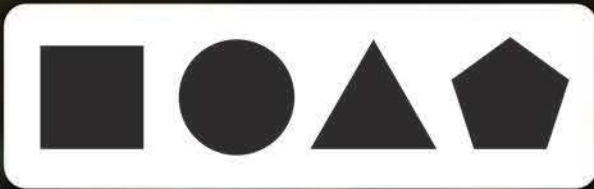


생활 타이포그래피

시각보정과 커닝



형태가 다른 4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의 높기와 중심 간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사각형이 특히 커 보이고 도형 간의 간격도 모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도형의 형태가 시각적 크기와 간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도형들의 시각적 크기와 간격이 같아보이기 위해서는 도형에 따른 크기와 간격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각보정'이라 부릅니다.

이 시각보정이 필요한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는 로고를 배치할 때입니다. 행사 포스터 하단에는 주관사나 후원사의 로고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들을 같은 높이나 폭으로 배치해도 실제 느껴지는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시각보정이 필요합니다.

크기를 같은 높이로 한 뒤,
중심 간 간격을 동일하게 한 경우

대한민국공군 공감 씨엠씨티

최대한 균일하게 보이도록
시각조정을 한 경우

대한민국공군 공감 씨엠씨티

이런 원리는 글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글자는 모두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동일한 간격을 주면 오히려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폰트에는 각 글자마다 고유한 간격 값이 들어가 있어서 글자들이 모두 같은 간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높은 폰트라고 하더라도 뒤에 오는 글자까지 조화롭게 고려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간격을 수동으로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글자를 입력한 뒤
아무런 값을 주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공군

각 글자의 중심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춘 경우

대한민국공군

각 글자의 간격이
조화롭도록 조정된 경우

대한민국공군

서희강

미디어콘텐츠과

서희강

미디어콘텐츠과

이 경우 '서희강'이라는 글자와 '미디어콘텐츠과'라는 글자는 똑같이 왼쪽 줄에 정렬되어 있지만 '미디어콘텐츠과'가 더 왼쪽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미디어콘텐츠과'를 약간 오른쪽으로 밀어주거나 '서희강'을 약간 왼쪽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서'라는 글자 왼쪽에는 빈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희강

미디어콘텐츠과

그러나 이름이 '마희강'이라면 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는 글자는 네모에 가깝기 때문에 아래 줄의 '미디어콘텐츠과'와 왼쪽 끝선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개별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커닝'이라 부릅니다. 흔히 알려진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전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를 넣었는데 글자의 개별 간격이 어색하다 느껴진다면 커닝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화장실의 '실'보다 Toilet의 't'가 더 오른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oilet'을 조금 왼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KOREA에서 E와 A의 간격이 다른 글자들의 간격보다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왼쪽 위와 오른쪽 위가 많이 비어 있는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A를 좀 더 E와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kern me

To get started drag or move your —→ kerning

커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곳으로 'Kern m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시된 영문 글자를 직접 옮겨본 뒤 제출하면 점수를 매겨주는 게임성 사이트로, 커닝감각을 가볍게 익혀볼 수 있습니다.

커닝을 모든 글자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로고에 들어가는 글자나 포스터의 제목, 표지판처럼 글자 수가 비교적 적으면서 주목도가 높은 곳에 쓰이는 글자는 간격이 조화로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글
심호규 교수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



공군인의 마음건강

일곱 색깔 무지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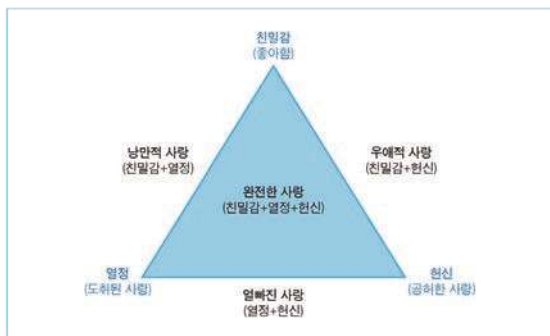


진주교육사령부 연병장, 한 연인이 서 있다. 그들은 전역할 때까지 변치 말자며 굳은 약속을 한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이런 이야기의 당사자 중 한사람이 물어본 적이 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냐고!

이에 답하기 위해 사랑에 대해 알아보자. 사랑(LOVE, 愛, 慈, あい, Liebe, amour, affection, любовь, tình yêu, محبة)이라는 단어는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가치이고, 사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Sternberg은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의 3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했다. 친밀감(Intimacy)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깝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사랑하는 사이에서 경험하는 따뜻함과 같은 느낌을 말한다. 열정(Passion)은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몰입 등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생기게 하는 욕망을 말한다. 열정의 주요부분은 성적(性的)욕구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생리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헌신(Commitment)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그 사랑을 지속시키겠다는 책임감까지이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항상 같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 3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다음의 8가지의 사랑의 유형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apted with permission.

(1) 좋아함(Liking)

열정과 헌신의 요소가 결여된 채 친밀감만이 경험될 때 나타난다. 여기서 좋아함이란 친구들 관계에서 경험하는 우정과 유사한 종류의 감정에 가깝다. 좋아함은 강한 열정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헌신 없이도 상대에게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2) 도취된 사랑(Infatuated love)

도취된 '사랑은 첫눈에 빠진 사랑' 혹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화 시켜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이다. 친밀감이나 헌신의 요소가 결여된 열정적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도취된 사랑은 보통 눈에 띄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즉흥적으로 생겼다가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또 정신적, 육체적인 흥분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 공허한 사랑(Empty love)

공허한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이 결여된 채 그 사랑을 지키겠다는 헌신만 있다. 몇 년 동안 상대방에게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체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류의 사랑이다. 공허한 사랑은 대체로 오래된 관계가 끝날 때쯤 나타나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작의 의미가 될 수 있다.

(4)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낭만적 사랑은 육체적 매력이 불리일으킨 열정이 첨가된 좋아하는 감정이다.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을 하는 이들은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즉 낭만적 사랑을 하지만 지속적인 만남에 대해 고려하려 하지 않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낭만적인 사랑과 거의 비슷한 사랑을 한다.



(5)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

오랜 우정 같은 결혼에서 발견되는 사랑으로 열정의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사라진 사랑이다. 사실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차츰 우애적 사랑으로 변해가면서 남게 된다. 즉, 열정은 없어지면서 친밀감은 남아있는 것이다. 이 사랑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커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의 낭만적 사랑을 원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런 낭만적 로맨스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얼빠진 사랑(Fatuous love)

얼빠진 사랑은 때로는 할리우드 영화나 공개구혼 프로그램 등에서 접하게 되는 종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대체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지속적 일수가 없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친밀감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빠진 사랑은 우울에 민감하다. 열정이 식어갈 때 남아있는 것은 헌신뿐이지만 이 헌신은 장기간에 걸쳐 성숙되고 심화된 것이 아니라, 어리고 얇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에 기초를 둔 관계에서 열정이 사라진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7)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Consummate love)

성숙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랑의 유형에는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있다. 이 사랑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이다. 특히 낭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다. 이런 성숙하고 완벽한 사랑은 얻고 유지시키기 어렵다.

(8) 사랑이 아닌 것(Non-love)

이것은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결여된 것으로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수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 그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심각한 방식으로 지속되지 않는 단편적인 것이다.

개인은 경험된 친밀감, 열정, 헌신 수준의 결과로 자신의 '사랑 삼각형'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상대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강도가 클수록 상대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 삼각형의 면적은 커진다. 사랑의 세 요소가 더 클수록 사랑 삼각형의 중심으로부터 꼭짓점이 더 멀리 위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즉, 사랑의 크기는 이 세 요소(친밀감, 열정, 헌신)로 결정되며, 사랑의 유형도 이 세 요소의 상대적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사랑은 변한다. 그러니 지금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Consummate love)」으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F**



첫 독자의 편집후기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사쿠라가와 신이치 지음 | 하진수 옮김
경원북스 퍼냄 | 244쪽 | 13,000원

부자 vs 빈자 '습관의 차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바야흐로 살을 드러내야 하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 시기 뚱뚱한 사람들은 굶어서든 심한 운동을 해서든 급격하게 살을 빼려 하지만 오래 며칠 안 가 포기하고 만다. 반면, 언제나 날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산다.

여기서 적어도 두 사람의 체질이 같다고 가정하면, 뚱뚱한 사람과 늘 날씬한 사람의 차이는 '노력'이 아닌 '습관'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먹을 때는 당연히 국물을 남기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많이 먹지 않는다. 반대로 뚱뚱한 사람들은 그 반대의 습관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다.”

20대 때 친형의 회사가 도산해 줄지에 3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빚을 갚아 나가 오히려 30억 자산가가 된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저자 사쿠라가와 신이치는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30억 자산가가 된 저자가 만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의외로 돈을 모으기 위해 극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평소 돈이 모이는 습관이 살짝 몸에 배어 있기에 본인조차 돈을 모은다는 의식이 없지만, 저절로 돈이 모인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급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며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만 금세 힘에 부쳐서 그만두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애쓰고 아껴가며 돈을 모으지만 결국 '이렇게 애쓴 나 자신을 칭찬해줘야겠어'라며 비싼 음식을 먹어버린다는 것이다.



“돈의 신이 떠나는 사람 vs 돈의 신이 찾아오는 사람”

저자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자와 빈자의 습관 차이다. 저자는 이 습관의 차이를 무려 40가지 항목으로 소개한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 먼저 가난한 사람은 나눗셈으로,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빈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야. 한 달에 대략 1만 7천원이라고.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싼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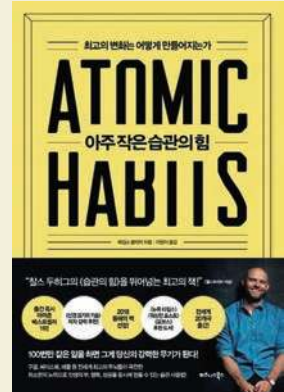
그러나 부자는 월 3,000원짜리 휴대전화 서비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여기에 12를 곱해서 연간 3만6,000원짜리 서비스라고 판단한다. 저자는 빈자의 나눗셈 사고방식을 “고객의 빛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며 가난으로 향하는 입구”라고 비판한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부자는 자신의 지갑에 있는 현찰이나 은행계좌에 있는 잔액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강 얼마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다. 보통 빈자는 월급날 일주일 전에 돈을 이체할 때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갑에 있는 현찰도 ‘어? 5만 원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반면 저자가 만난 우수한 경영자들은 하나같이 머릿속에 혹은 항상 들고 다니는 수첩에 자신의 회사 매출과 관련한 숫자들이 뽁뽁이 들어차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또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사고가 상당히 닳았다”라고 말한다. 빈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다. 저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었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5억 원을 빌려 아파트 경영에 승부를 걸었다. 저자가 만난 부자들도 이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 돈을 모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호방한 가난한 사람, 섬세한 부자 ▲풍채가 좋은 가난한 사람, 늘씬한 부자 ▲정보가 많은 가난한 사람, 정보를 선별하는 부자 ▲친구가 많은 가난한 사람, 친구가 적은 부자 ▲점을 믿는 가난한 사람, 신을 믿는 부자 ▲지갑이 두꺼운 가난한 사람, 지갑이 얇은 부자 등의 제목으로 시작하는 흥미로운 습관 차이가 많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빈자의 습관을 지니고 있어 뜨끔했다면, 책을 읽고 체질 개선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AF**

01.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 이한이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 | 360쪽 | 16,000원

02.



『1일 1행의 기적』
유근웅 지음 | 비즈니스북스 펴냄
224쪽 | 13,800원

- 01. 이 책은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심이 분명해야 하고(제1법칙), 매력적이어야 하며(제2법칙), 쉬워야 하고(제3법칙), 만족스러워야(제4법칙)한다. 이 책에서는 이 네 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 02. 실행력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매일 하나라도 실행이 옮기는 1일 1행이 실행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위대한 성과는 우연한 큰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5분 운동을 하고, 30일간 10쪽씩 책을 읽고, 100일간 감사한 일을 적는 사소한 실행들을 매일 복리처럼 쌓으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나폴레옹,
진정한 군인정신에는 사심과 야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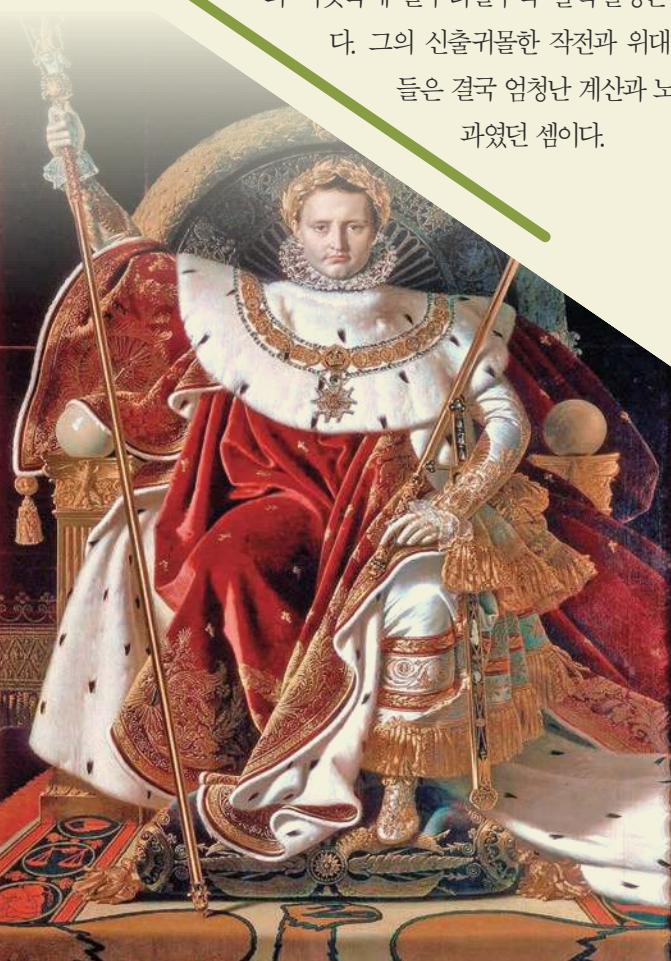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나폴레옹, 진정한 군인정신에는 사심과 야망이 없다

“작전에 우연이란 없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작전을 짤 때 며칠씩이나 방에 틀어박혔다. 비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거대한 지도를 집무실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책상 위는 산더미같이 쌓인 정찰 보고서들로, 방 곳곳에 놓인 상자는 수백 장의 메모로 채워졌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작전에 적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측했다. 그러곤 중얼거리며 가능한 모든 공격과 방어의 조합들을 일일이 검토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과학 엘리트들이 있던 포병 장교 출신이었다. 수학과 물리학에 밝았던 그에게 ‘우연이란 없었다. 벌어질 만한 상황들이 하나씩 그의 머릿속에 갈무리될수록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그의 신출귀몰한 작전과 위대한 승리들은 결국 엄청난 계산과 노력의 결과였던 셈이다.



“나는 어떤 원칙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합리성에만 집착하는 ‘전쟁기계’가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정신력과 사기를 그 무엇보다 강조했다. “인생에서나 전쟁에서나 물량이 1이라면 정신은 3이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프랑스 군영에 나보(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애칭)가 함께 한다는 자체만으로 4만 명 이상의 병력 증강 효과가 있다.” 워털루 전쟁 당시 적군이던 영국군이 했던 평가다.

나폴레옹의 군대의 기동력은 그 자체로 전설이라 할만하다.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사흘 동안 80킬로미터를 행군했고, 올름 전투에서는 22일 동안 445킬로미터를 나아갔다.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그의 구원 부대는 이틀 동안 140킬로미터를 행군하여 전장에 나타났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장병들이 나폴레옹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법한 결과들이다.

나폴레옹에 대한 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능력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술에 대해 “나는 어떤 원칙도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곤 했다. 자신에게는 승리를 이끄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없다는 투였다. 군인으로서의 그의 능력과 리더십은 오히려 사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그는 ‘계몽주의의 아들’이라 할 만하다. 계몽주의자들은 오직 이성과 합리적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주장한다. 전장에서의 나폴레옹이 바로 그랬다. 그는 운을 믿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기반으로 병력을 전개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아들’이기도 했다. 나폴레옹의 경력은 그 자체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급한 군인이었다. 1793년,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군 대위에서 준장으로 승진했으며, 3년 뒤에는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다. 나아가 1805년에는 황제가 되어 프랑스 대육군(Grande Armée) 전체

◀ ‘프랑스 혁명의 아들’이었던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며 ‘혁명의 배반자’가 되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긴 아서 웰즐리 웰링턴은 ▶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제라도 (위대한 장군은) 나폴레옹뿐이다.”라고 말했다.

를 통솔하여 아우스터리츠에서 대승(大勝)을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자유’, ‘평등’, ‘박애’다. 능력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싹튼다. 식민지 출신의 낮은 계급의 귀족이었던 그가 승승장구한 데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끈 ‘자유’와 ‘평등’이 큰 몫을 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는 박애(博愛, fraternity)의 정신은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모든 시민이 골고루 대접받는 세상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예나 전투 후 나폴레옹을 보고 “나는 말을 탄 (역사를 이끄는) 절대정신을 보았다.”고 감탄했다. 나폴레옹은 억눌려있던 당시 유럽 사람들을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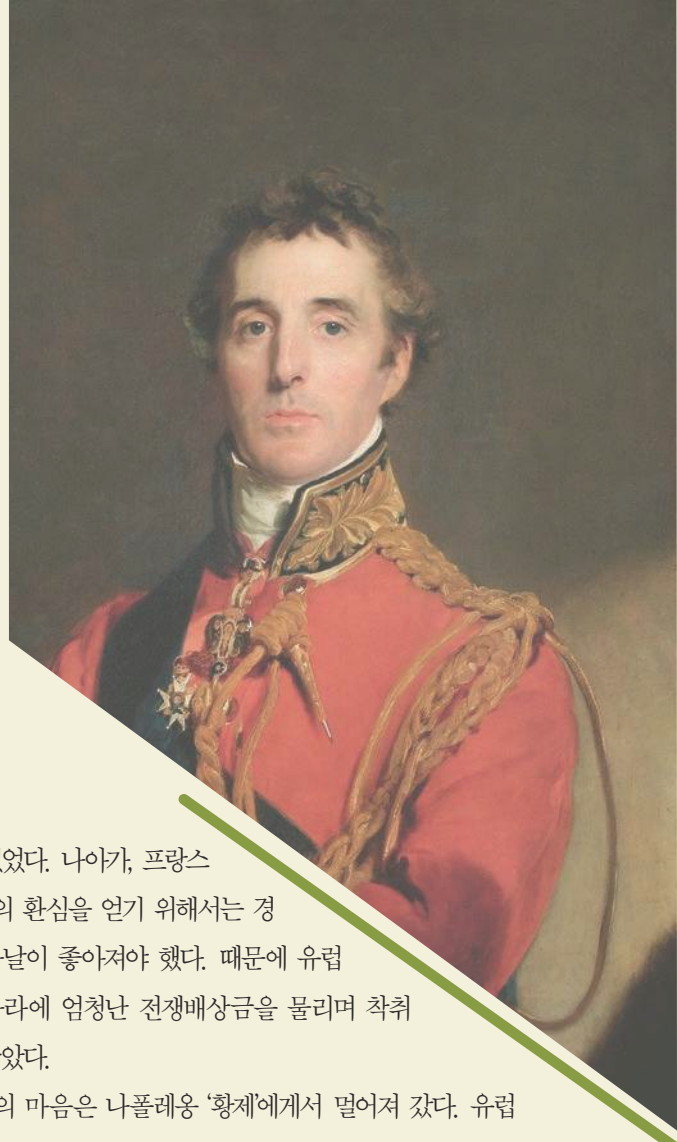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의 선두에서 나아가라. 그러면 시대 정신이 그대를 따르고 지지할 것이다. 시대의 정신을 뒤따라가면 사상이 당신을 끌고 갈 것이다. 반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면, 그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나폴레옹이 최고의 군인으로 장병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정의의 편에 섰던 데 있다.

“올바른 군인에게는 사심과 야망이 없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온 유럽의 적이 되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에는 전쟁이 한시도 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프랑스 혁명의 아들이었던 그가 황제가 되면서 ‘혁명의 배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대혁명은 압제자가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국(republic)을 꿈꾸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며, 자신의 형제들을 유럽 여러 나라의 왕으로 앉혔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아연해졌다. 나폴레옹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지를 받을 방법은 전쟁을 통해 엄청난 전과를 올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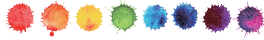
밖에 없었다. 나아가, 프랑스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가 나날이 좋아져야 했다.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에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물리며 착취를 일삼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멀어져 갔다. 유럽 곳곳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는 세력들이 불끈거렸다. 이럴수록 나폴레옹은 조금씩 적들을 몰아붙이며 전쟁을 벌였고 더더욱 전과에 집착했다. 마침내 현실성 없는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 실패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최종적인 패배를 안긴 아서 웰즐리(Arthur Wellesley, 1769~1852)는 자신이 나폴레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제라도, (위대한 장군은) 나폴레옹 뿐이오. (In this age, in past age, in any age, Napoleon.)”

나폴레옹은 이렇듯 적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군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패장(敗將)이 되어 아프리카의 외딴 섬 세인트헬레나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다. 군인으로서의 능력만 보자면 나폴레옹은 최고의 장수였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은 자신이 극복하려는 불가능이 ‘정당한지’도 캐물어야 한다. 올곧은 군인정신에는 사심과 야망이 없다. 오직 헌신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영웅 나폴레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AF



생각하는 그림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자존감이 높다’, ‘우월감을 느낀다.’ 이 두 문장은 매우 유사한 의미인 듯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비교 대상이 필요 없지만 우월감은 언제나 나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친구 보다는 성적이 좋아’, ‘쟤는 나보다 키가 더 작아.’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도,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도,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우월감도 심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우월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비판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보다 능력이나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런 우월감은 아주 일시적으로 열등감을 해소해줄지도 모르지만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버린 개인은 다시 열등감과 우월감을 왕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우월감과 열등감은 꼭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 전반적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의 입장에서도 우월감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개인이 스스로 발전하며 노력하는 에너지야말로 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열등감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또 우월감에 빠진 개인과 집단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혹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월감, 열등감의 탈출구는 아닙니다. AF



● 기준의 기준 휴학생이자 아들, 친구이자 군인

선배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실컷 수다를 떨던 중, 조용히 앉아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카페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특이한 점은 바로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일외출로 공부를 하러 나온 병사였다. 나는 병사들의 평일외출이 시행되면 PC방, 당구장으로 향하는 장병뿐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식이 부족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병사에게는 다양한 삶의 단편이 담겨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에게서는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의 모습이 보였고,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의 모습도 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저 '군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재된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병사들은 외출 나오면 PC방, 당구장이나 가겠지.'하고 생각했던 것도 어쩌면 한 사람의 병사를 그저 '군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한 단어로 정의내릴 수 없다. 나 역시도 군인인 동시에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20여 년의 삶을 의무복무 22개월의 시간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처럼, 군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내릴 수 있는 장병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공간의 힘은 엄청나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보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실체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내가 부모님을 보러 서울 집에 가면 아들이 되고, 다시 부대로 돌아오면 윤 소위가 되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과 있는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모습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다.

군대가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고 오로지 군인으로만 살라고 강요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병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다. 책을 좋아하는 병사가 서점에, 영화를 좋아하는 병사가 영화관에 가게 해주는 것은 그를 그답게

살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이다. 결국 평일외출 허용이란 병사들에게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여러 가지 '나'를 표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평일외출이 허용되면서 부대가 가진 의미도 변해가고 있다. 나 가지 않고 부대에 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대가 '감혀있는 곳', '답답한 곳'의 의미를 넘어, 쉬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 실제로 월간 <공군> 4월호 '시범운영 부대의 목소리를 듣다' 코너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장병들은 '지금도 (평일외출 제한 횟수) 월 2회가 많다고 다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누워서 휴대폰도 하면서 편히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등 부대를 새로운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평일외출이라는 제도 안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병사가 있는가하면,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집돌이'처럼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병도 많다. 병사 평일외출이 시범 운영되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중 '다 외출 나가버리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는 의견이 많았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사실 군대는 다양한 정체성이 꿈틀 거리는 공간이다. 평일외출이 시행되어도 누군가는 일과 후 생활관에서 유튜브를 보며 취미를 발전시키고, 누군가는 외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군인을 그저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 난 사람', 또는 'PC방밖에 갈 곳 없는 사람'으로 획일화해서 생각하는 건 장병들의 다양성과 여러 삶의 단편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카페에서 본 병사처럼 모든 장병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일외출은 병사 개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된 여러 측면을 발견하고 그 중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 믿는다. 휴학생, 아들 등 인생의 다른 부분을 제거하고 군인으로만 살아가라고 강요하기보다 인생의 여러 조각들 중에 '군인'이라는 한 조각을 새겨넣어주는 것이 우리 장병들의 삶에 더 뜻깊은 일이자,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2019
05
4 9 1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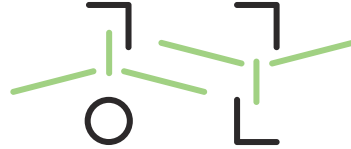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담벼락’이 ‘공군인의 편지’로 변경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월간 『공군』이 우체부가 되어
기념품과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wittyyo@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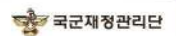


마감일 : 5월 31일까지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사업 시행 안내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사업 시행을 통한 금융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사업자

사업자	KB국민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사업기간	'19.2.8. ~ '29.2.7.(10년)	
서비스	카드할인혜택 + 은행우대혜택(대출·이율·예적금 등) 추가	

● 사업자별 제공혜택 요약

·주주소 : 75 ~ 80원 / 회	·통신료 : 1.5 ~ 2.5천원	·영화 : 1회 5 ~ 6천원 / 연 6 ~ 12회
군 복지시설 할인혜택(골프장, 휴양시설) : 3 ~ 5만원		
대출한도 : 개인신용 고려 연간수급액 120% ~ 180%		
대출금리 : 우대금리 고려 2.75 ~ 4.09% 대출금리적용		
타행 ATM 현금출금 시 수수료 면제혜택 : 무제한		
예금금리 : 1.95 ~ 2.6%, 적금금리 : 1.5 ~ 5.80%		

※ 상기 혜택 중 일부는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지점 방문 후 확인 가능

※ 군인연금증카드 : 종이형 연금증서 대체, 신용·체크·일반카드 기능, 軍 복지시설 신분확인 가능

● 발급방법

- 전역자 : 기존 보유 연금증서(카드형/종이형) 또는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소지 후 은행지점 방문
- 신규 연금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소지 후 은행지점 방문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용도(군인연금증서 신청용) 및 받으실 우편주소(또는 FAX번호)를 재정단에 송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20-1호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 F A X / 연락처 : 02)3785-0443 / 02)3146-6016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letters or comments.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5
4 9 1

총상금 1,200만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2019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

2019.03.18 - 09.30



응모일정

- 접수기간 2019년 03월 18일(월) - 9월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수상작 발표 / 시상 2019년 11월 중 예정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 국방일보 등 지면발표 및 개별연락)

응모주제

- 현대전(4차 산업혁명시대)과 정신전력
 - 정신전력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 역사(전쟁사 포함)와 국가안보(군인정신)
 - 장병 자긍심 고취 및 복무만족도
 - 대국민 홍보 및 소통방안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보의식 고취방안
- *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

응모방법

- E-mail 접수 군 kjg1234@mnd.mil 인터넷 jungsin3560@mnd.go.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논문
 - 접수처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개발부
- * 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 인트라넷, 공문 등 참조
- 군 975-3561-5 일반전화 042-878-3561-5

시상내용

총상금 1,200만원(국방부장관 상장 수여) / 12명

구분	일반부	군인부
최우수상	1명 / 300만원	1명 / 100만원
우수상	2명 / 각 200만원	2명 / 각 80만원
장려상	3명 / 각 50만원	3명 / 각 30만원

주관부서

국방부 국방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 |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개발부
유의사항 : 표절 및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상과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은 취소됨





「마음의 소리」



이인숙 (사천시 용현면)

저희 남편은 육군 출신이고요, 큰애는 해군으로 전역했어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으로 군복무를 마친 셈이죠. 작은애는 공군에 지원해 현재 3훈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 꽂혀있는 『공군』을 접하고 나서 애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공군에 보낸 이상, 부모로서 공군에 대해 알아야겠기에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알려고 노력한답니다. 작은애가 한여름 무더위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 받은 지 어느덧 1년 9개월이 지났네요. 작은애가 제대하면 우리집은 명실공히 육해공 3군에서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이 된답니다. 공군 파이팅!

편집실 독자님 가족은 그야말로 합동성이 충만한 가족이네요! 이 공군지를 받아보실 때는 이미 아드님께서 무사히 전역했거나, 말년휴가 중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공군』과 함께 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모쪼록 행복한 추억이 많으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군』을 통해 공군 소식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은 (김해시 삼방동)

공중급유기에 대한 내용은 공군의 비밀을 살짝 들여다본 것 같아서 흥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채우는 순간의 사진을 보면서 공군의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급유기가 전투기와 컨택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있어서 꼭 옆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순간을 알 수 있었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시그너스의 이름부터 상세한 정보들까지 일반인인 제가 잘 알 수 있게 설명되어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더 견고해짐을 느꼈습니다.

편집실 편집실은 대한민국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에 대해 독자님들께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대한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진과 함께 인포그래픽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자님께 편집실의 노력이 잘 전달된 거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군만의 특별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일 (임실군 관촌면)

497기 공군병장 문종일입니다. 면사무소 근무 중인데 『공군』은 읽을 때마다 항상 즐겁습니다. 젊고, 늘 신사적인 기사는 자긍심을 갖게 한답니다. 아들이 이번에 학교에 가는데, 『공군』에 나온 비행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오려서 가져가네요. 월악의 정기가 활주로에 서렸던 20비 날카롭던 항공기 이륙소리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실 오랜 시간동안 공군 그리고 『공군』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군』을 읽으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드시는 건, 독자님의 공군에 대한 애정 덕분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월악의 정기가 활주로에 서렸던 20비'라는 표현도 애정 어린 시구로 느껴지네요. 『공군』 편집실은 공군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공군인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드님이 오려가고 싶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숙 (대구시 달서구)

우연한 기회로 월간 『공군』을 받아보게 된 것이 벌써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가씨에서 아줌마가 되었고, 재미와 상식으로 읽게 되던 『공군』을 이제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엄마로서 관심과 정보를 위해 꼼꼼히 보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을 군에 보내야하는 게 안쓰럽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을 보면서 달라진 병영문화와 분위기, 또 젊은 장병들의 활기찬 군생활을 보니 안심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군생활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큰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실 『공군』과 함께 해오신 20년 넘는 세월의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공군』과월호를 보면, 그 당시에 겪은 추억도 함께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독자님처럼 '자랑스럽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장병들은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는 만큼 더욱 밀도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군생활과 독자님의 응원에 작게나마 보태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4 9 1